



K-공감

더 든든하게, 국민 속으로
향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영웅들
반건호 교수가 말하는 성인 ADHD
영덕 뚜벅이마을에 청년들이 몰린 이유



1호 영업사원 ‘제2 중동붐’ 시동

윤 대통령 사우디·카타르 국빈방문

다시 부르는 이름

We Call Your Name Once Again

2023. 10. 19.
- 2024. 04. 28.

전쟁기념관 3층 특별전시실
3F, The War Memorial of Korea



편성준

유머와 위트 넘치는 글로 독자를 사로잡은 작가.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했다. <부부가 둘 다 놓고 있습니다> <살짝 웃기는 글이 잘 쓴 글입니다>를 썼다. 현재 다양한 채널에서 글쓰기와 책쓰기 강연을 하고 있다.

어떤 새치기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바꿔놨다.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은 마스크로 가려졌고 악수와 키스를 하는 이는 무모한 사람으로 간주됐다. 학교, 사무실, 공연장 등 매일 가던 공간의 출입이 제한되자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안부를 전하고 회의를 했다. 수십 년 전 유명 배우 커플의 이혼 사유였던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는 말이 줄지에 예의를 지키는 에티켓으로 변한 것이다.

지난해 한 대학교에서 6개월간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같은 학번 학생들이 서로 존댓말을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대부분의 수업과 만남이 온라인으로 이뤄졌고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풀린 뒤에도 다들 마스크를 하고 있기에 가까워질 기회가 적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배려보다는 경계하는 마음이 앞서고 서로를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됐다. 대학생뿐 아니라 전 세대에 걸친 변화였다.

몇 주 전 연극 공연을 보러 갔을 때의 일이다. 그 공연은 '자유석 시스템'이어서 조금 일찍 극장에 가야 했다. 지정석이 아닌 경우엔 입구에 줄을 섰다가 차례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아내와 나는 비교적 앞쪽에 줄을 서 있었는데 그때 업무상 중요한 전화가 오는 바람에 줄에서 이탈해야 했다. 아내는 우리 뒤에 서 있던 여성에게 웃으며 양해를 구했다. "저희 남편이 잠깐 전화를 받으러 갔는데 다시 와서 여기 서도 되겠죠?" 여성의 대꾸는 싸늘했다. "새치기를 하겠다는 건가요?" 따지고 보면 새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역력하게 느껴져 아내는 한발 물러섰다. "예, 그럼 저희가 맨 뒤로 갈게요.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자 그 여성의 입에서는 더욱 앙칼진 소리가 튀어나왔다. "기분 나쁘잖아요!"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공연장에 들어간 그 여성은 자기 옆자리에 가방을 올려놓았다. 혹시 친구 자리를 대신 맡아놓는 건가 하는 의심에 유심히 쳐다보니 역시 뒤쪽에 서 있다가 들어온 여성이 웃으며 그 자리에 앉았다. 명백한 새치기였다. 당장 달려가서 왜 새치기를 하느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어느덧 불의를 보고도 잘 참는 게 버릇이 된 나는 한숨을 쉬며 허탈하게 웃어야 했다. 시인 김수영은 고궁을 나서며 '왜 나는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라고 일갈했지만 나는 작은 일에도 분개하지 못하는 어른이 됐다는 자괴감이 몰려왔다.

공정함이 화두인 시대다. 그런데 공정이라는 게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가 다 같이 출발하는 달리기 같은 것이라면 너무 알파하고 표면적이다. 누군가는 운이 좋아 충분히 훈련을 하고 뛰겠지만 누군가는 체력 조건이 더 안 좋은 상태에서 출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진정한 공정함이란 각자의 능력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측은지심에서 온다. 부자 아빠를 둔 아이의 1000원과 가난한 집 아이의 1000원이 다르듯이 각자가 처한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이를 다 알 수 없기에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K**



박순철, '바람이 분다', 192×66cm, 한지에 수묵담채, 2015년

화려한 가을이 아닐지라도...

세월이 빠르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가을이 되면 그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고 인생도 덧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을이 불러일으키는 정서입니다. 박순철의 '바람이 분다'는 이즈음의 가을풍경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가을풀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습니다. 가을이 아니었다라면 눈길조차 끌지 못했을 무명초들입니다. 단풍나무처럼 붉은색도 아니고 은행나무처럼 노란색도 아닙니다. 색 바랜 풀들이 마치 무명씨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닮았습니다. 작가는 심상하기 그지없는 잡풀들에 심상치 않은 필법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먹을 우려내는가 하면 담채를 올렸고, 선을 긋는가 하면 선을 지웠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정원사의 손길 같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한생을 충실하게 꽃피웠으니 그만하면 됐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바람이 불어왔자 설마 소쩍새가 올 때부터 쌓아왔던 추억까지 날려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화가의 붓끝에서 피어난 가을풀들은 그래서 당당합니다. 무명씨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욱 미술평론가



2023.10.30-11.05

No.727

정책주간지 gonggam.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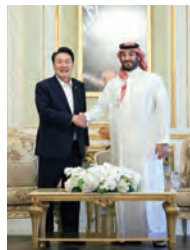
K-공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리더기를 이용해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발행일 2023년 10월 30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발행인 유인촌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6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 삼화인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 851-0183

〈K-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표지사진 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K-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i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커버스토리

1호 영업사원 '제2 중동붐' 시동

» “한·사우디 강력한 시너지” 또 21조 원 계약·MOU
» 43년 만에 공동성명 채택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 카타르 국민 방문 ‘역대 최대’ 5조 원 LNG선 건조 유치

06

정책 돋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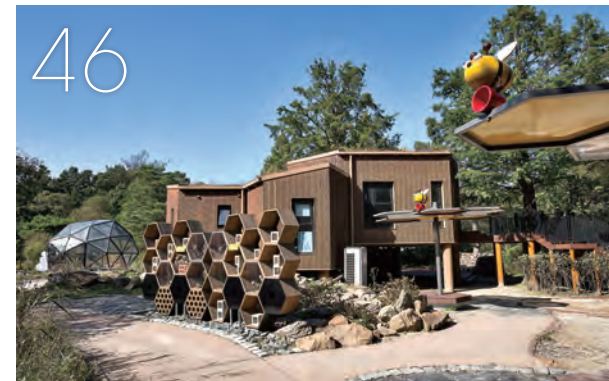
01 세대공감 김세대의 생각
편성준
‘어떤 새치기’

02 공감갤러리
박순철
‘바람이 분다’

16 알쓸정책
유사 보험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외

20 이슈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상황 발표

22 휴게실 라운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외



노동

23 한국노총·민주노총 회계공시 참여…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더 든든하게, 국민 속으로

24 정책서민금융
코로나19·인플루엔자(고령층) 무료 접종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30 한계를 넘고 장애를 넘어… 21개 종목 208명 ‘열정’ 금메달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대한민국

32 비만을 높은 지역 건강수명 낮아

K-피플

34 ADHD 전문가, 반건호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청년

38 지역 활력, 청년마을에서 답을 찾다… 영덕 뚜벅이마을을 가다

소비자

44 ‘온라인피해365센터’ 개소 1주년

문화

45 ‘천사섬’으로 간 대한민국 문화의 달

우리 아이 안전지대

46 국립수목원 ‘숲이오래’ 키즈 아카데미

숨은 국대 찾기

50 ‘아무도 돌보지 않는 죽음’ 돌보는 장례지도사 강봉희

건축

54 품격 있는 생활공간은 이런 곳! 2023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웹툰 홍성윤 기자의 좌충우돌 쌍둥이 육아

56 쌍둥이와 놀기

몸건강 마음건강

57 사기꾼의 수화와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

사진작가의 주말여행

58 별을 품은 청정자연, 경북 영양군

함께 즐기다

62 원헨필하모닉 내한 공연 외

64 독자 공감

“한·사우디 강력한 시너지” 미래 기술부터 안보까지 21조 원 계약·MOU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2일(현지시간) 리야드 아마마궁에서 열린 한·사우디 협정 및 MOU 서명식에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10월 21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상공에 진입했다. 이내 사우디 F-15 전투기 2대가 공군 1호기 양옆에서 호위 비행을 시작했다. 공군 1호기가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착륙해 윤 대통령 부부가 내리자 사우디는 예포 21발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이동하는 길에는 사우디가 국민에게만 사용하는 보라색 용단이 깔렸다.

사우디의 환대를 받으며 국민 방문 일정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3박 4일간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한·사우디 정상회담’과 오찬 등 국빈 일정을 소화하고 ‘한·사우디 투자포럼’,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등 경제 행사에 참석해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래 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 시키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국빈 방문에선 43년 만에 한·사우디 간 ‘공동성명’이 채택돼 정상외교 측면에서 성과를 거뒀다.

‘한·사우디 투자포럼’과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등 경제 관련 행사에선 총 51건, 21조 원(약 156억 달러) 규모의 계약·양해각서(MOU)를 맺는 등 ‘세일즈 외교’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022년 11월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 당시 이뤄진 39조 원(29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더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양국 간 투자협력 규모는 60조 원에 달한다.

‘비전 2030’ 전 분야 파트너십 확장

10월 22일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인들

과 한·사우디 투자포럼에 참석했다. 리야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는 경제부처 장관들을 비롯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지빌리티 회장 등 기업인 180여 명이 참석했다. 사우디 측에선 칼리드 알 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와 기업인 180여 명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첨단 기술력, 성공적 산업 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 풍부한 자본,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우디가 손을 맞잡으면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한 사우디의 국가 전략인 ‘비전 2030’을 언급하며 “이제 양국 간 협력 관계도 원유·건설을 넘어 제조업, 스마트 분야, 청정에너지 등 비전 2030과 관련된 전 분야로 파트너십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네옴, 키디야, 홍해의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양국 기업 간 협력이 구체화하고 있다”며 “미래를 향한 사우디의 과감한 투자가 대한민국 첨단기술 및 문화 콘텐츠와 결합한다면 상상의 도시가 현실의 도시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와 함께한 역사가 곧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역사”라며 “양국 경제인들의 헌신적 노력에 힘입어 이제 대한민국과 사우디는 각각 아시아와 중동을 대표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협력 관계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사우디

가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경제인 여러분들”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을 계기로 청정에너지, 전기차, 디지털, 스마트팜 등 분야에서 총 46건의 계약 또는 MOU가 체결됐다. 분야별로 ▲에너지·전력 분야 7건(계약 2건·MOU 5건) ▲인프라·플랜트 8건(계약 1건·MOU 7건) ▲첨단산업·제조업(전기차 등) 19건(계약 2건·MOU 17건) ▲신산업 10건(계약 1건·MOU 9건) ▲금융협력 등 기타 MOU 2건 등이 체결됐다.

한국석유공사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의 530만 배럴 규모 원유 공동비축계약, 현대자동차와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약 4억 달러를 합작투자해 킹 압둘라 경제단지에 건설하는 CKD(반조립제품) 자동차 공장 설립 계약 등이 대표적이다.

알 팔레 장관은 “한국은 이제 사우디에 가장 큰 무역국이다. 작년 대비 60%나 무역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30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네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 협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한국과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배터리 분야와 자동차 원격센서 장치 등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4억 달러 가스플랜트 수주

10월 23일 리야드 네옴전시관에서 열린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사우디 전역에 걸친 1900여 건의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노력이 녹아

있다”며 “사우디가 추진 중인 네옴시티 등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도시건설 역량을 결합한다면 양국이 함께 미래 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0억 달러 규모의 아미랄 프로젝트를 포함해 올해에만 62억 달러의 사우디 인프라 사업을 한국 기업이 새로 수주하게 됐다”며 “양국이 굳건히 다져온 토대 위에 기술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경제협력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행사를 계기로 국내 기업과 사우디 기업 간 인프라 수주계약이 체결됐다고 전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아람코와 24억 달러 규모 ‘자푸라2 가스플랜트 패키지 2’를 체결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중동 최대 셰일가스전인 자푸라 지역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정제하기 위한 플랜트 사업으로 2021년 수주한 29억 달러 규모의 자푸라 1단계 사업에 이어 연속 수주에 성공했다”며 “이번 계약으로 올해에만 사우디에서 총 86억 달

리의 해외건설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 이는 올해 해외건설 누계 수주액 259억 달러의 3분의 1 규모”라고 말했다.

또 네이버와 사우디 주택부 간에는 약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플랫폼 구축 계약이 체결됐다. 삼성물산과 사우디 국부펀드는 모듈러 건축, 건설자동화 등 스마트 건설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최적의 경제·투자 파트너”

윤 대통령은 사우디에서 ‘영업사원 1호’로서 행보를 이어갔다. 10월 24일

사우디 리야드의 킹 압둘아지즈 국제 컨퍼런스센터(KAICC)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2017년부터 매년 열리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은 이른바 ‘사막의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며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는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투자 파트너로서 한국의 강점으로 신뢰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1970년대 초 대한민국 기업과 근로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울라-카이바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24시간 3교대로 작업해 예정된 공기 내에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대한민국의 근면과 신뢰를 확인한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은 더 많은 공사를 맡겼으며 이는 부존자원도 별다른 기술도 없었던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궈나가는 출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혁신을 통해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의 반도체, 이차전지, 스마트폰의 20% 이상이 대한민국 기업의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와 달궤도 탐사선 발사를 성공시킨 세계 7대 우주강국 중 하나”라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과 같은 독보적인 원전 건설 노하우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다채로운 글로벌 문화 콘텐츠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3월 시작된 샤희 프로젝트는 한국의 기술 역량과 사우디의 투자 역량이 결합한 좋은 본보기”라며 “대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4일(현지시간) 리야드 영빈관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환담을 마친 뒤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장으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한민국의 석유화학 분야 사상 최대 투자를 통해 고효율·최첨단 생산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 비용의 절감, 전후방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함께 성장하는 연대를 추구한다”며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줄 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엔 사우디 생산 현대 전기차 타자”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 옆자리에 동승해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이 열리는 행사장으로 15분간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모하메드 왕세자는 윤 대통령

이 머무르고 있는 영빈관을 ‘깜짝 방문’했다. 예정에 없던 만남으로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낮 12시 10분부터 23분간 단독 환담했다. 이후 운전기사를 자처한 모하메드 왕세자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윤 대통령에게 “다음에 오면 사우디에서 생산한 현대 전기차를 함께 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사우디 국민 방문을 계기로 성사된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조립공장 건설 계약에 대한 사우디의 기대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앞서 현대차는 10월 22일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손잡고 5억 달러(6800억 원)를 투자해 사우디에 전기차 등 자동차 조립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2026년부터 연 5만 대의 전기차 등을 양산할 수 있게 된다.

강정미 기자

동행 경제인 만찬

“정부·기업 원팀, 뒹고 또 뒹 것... 제2 중동붐은 경제위기 돌파구”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3일(현지시간) “우리 기업의 수출과 수주에 도움 되는 일이라면 뒹고 또 뒹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동행 경제인 만찬을 열고 “정부와 기업은 원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저도 영업사원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우디 순방에서 우리 팀코리아는 156억 달러(약 21조 원) 이상의 수출·수주에 대한 업무협약(MOU)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소중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지리티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풍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김영섭 KT 대표이사,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사장 등 순방 경제사절단 18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우리 기업의 사우디 진출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면서 “수천 개의 햇불을 밝히고 철야작업을 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근면함과 성실함에 탄복한 파이살 국왕이 다음 공사로 한국기업에 계속 맡기라고 지시한 그 일화는 지금도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우디에서의 성공은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중동 진출로 이어졌고 1970년대 오일쇼크 위기를 극복하는 디딤돌이 됐다”며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위기 역시 새로운 중동 붐을 통해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사우디가 포스트 오일 시대를 위해 추진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기념관을 둘러보니 놀라운 도시의 콘셉트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엿볼 수 있었다. 전 세계의 모든 기술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야말로 현대의 만리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말 놀라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대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사우디도 원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3일(현지시간) 리야드에서 열린 국민 방문 동행 경제인 만찬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2일(현지시간) 리야드 야마마궁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한·사우디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한·사우디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43년 만에 공동성명 채택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4일(현지시간)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함께 43년 만의 한·사우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국과 사우디는 경제 및 안보협력에서 미래지향적 전략적 파트너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신중동 구상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포스트 오일 시대, 최적의 파트너”

먼저 윤 대통령은 10월 22일 모하메드

왕세자와 리야드 야마마궁에서 정상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사우디를 국민 방문하게 돼 기쁘다. 올해는 우리 기업이 사우디에 진출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이번 국민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대건설이 수주한 ‘아미랄 프로젝트(석유화학 플랜트 건설)’를 언급하며 키디야, 홍해 등 메가 프로젝트에도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왕세자와 사우디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포스트 오일 시대 한국은 사우디의 최적의 파트너다. 양국 관계가 전통적인 에너지, 건설 등의 분야에서 자동차, 선박도 함께 만드는 첨단산업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며 관광·문화교류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하메드 왕세자는 “윤 대통령의 사우디 국민 방문을 환영한다. 사우디의 국가 발전 전략인 ‘비전 2030’ 중점 협력 국가인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2022년 11월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설립하기로 한 ‘전략파트너십위원회’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된 데 대해서도 환영했다. 또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올해 ▲S-OIL 사한 프로젝트 기공식 개최 ▲벤처 투자를 위한 1억 6000만 달러 규모 한·사우디 공동펀드 조성 ▲중소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리야드 개소 등 실질적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관광·스마트팜·특허·해운 및 해양수산·통계·사이버안보·식약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는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의 회담을 계기로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 협정 ▲한·사우디 전략파트너십위원회 설립 MOU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3일(현지시간) 리야드 네옴 전시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 ▲통계분야 협력에 관한 이행 프로그램 MOU ▲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 협력 MOU 등에 서명이 이뤄졌다.

10월 24일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한·사우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이 상호 투자를 더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1962년 수교 이후 교역 규모가 400배 증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점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사우디 관계 심화·발전 44개 항’ 채택

한·사우디 공동성명은 1980년 최규하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후 43년 만에 채택됐다. 과거 8차례 정상급 교류가 있었지만 공동성명은 1980년 단 한 번이었다. 조항은 총 44개로 구성됐다. 2019년 공동 언론발표문이 19개 조

항, 1980년 공동성명이 12개 조항이었던 것과 비교해 가장 포괄적인 협력을 담은 문서다.

공동성명에는 원유와 제조업, 건설 등 전통 산업 분야는 물론 미래 기술과 안보까지 포괄하는 협력강화 방안이 담겼다. 2022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수립한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나가고자 뜻을 모은 양국은 “교역 및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적극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1960~70년대 ‘중동 건설붐’을 일으켰던 건설·인프라 분야의 협력 방안도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네옴 프로젝트를 비롯해 사우디가 추진 중인 키디야, 홍해 개발, 로신, 디리야 등의 기가 프로젝트와 이와 연관된 인프라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예상 사업비 5000억 달러(670조 원)로 추산되는 네옴 시티가 세 차례 언급됐다. 네옴시티는 한국 기업들도 250억 달러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관련 협력을 공식 문서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선 “사우디는 계속해서 한국의 원유 수요를 충족시

켜주는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원유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동시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전기뿐만 아니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및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수출될 청정 수소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미래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양측은 지역 및 국제 안보와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테러리즘·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협력도 증진기로 했다. 국내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의 파트너십 범위도 확대된다. 양측은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고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북한을 겨냥, 핵·탄도 프로그램 및 무기 이전 등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했다.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저해하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사우디는 이와 관련, 윤석열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제안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끈기있고 단호한 노력을 평가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팔 사태 등 중동지역 현안이 성명에 포함된 것은 사우디 측으로서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사우디 측의 신뢰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도 해석했다. **K** 강정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5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아미리 디완 왕궁에서 열린 한·카타르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마친 뒤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뉴스

해외정상 최초 킹 사우드대 강연

“한·사우디, 새 분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3일(현지시간)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 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있는 킹 사우드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3일(현지시간) 리야드 킹 사우드대학교를 방문해 재학생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뉴스

킹 사우드대는 1967년 사우

디에 설립된 최초 대학이자

사우디 실권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다. 킹 사우드대에서 연설한 외국 정상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날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안 사우디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 킹 사우드대 총장 및 교원,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1000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한국과 사우디의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며 “1970년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발판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내 사우디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와 같은 첨단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강연에 참석한 킹 사우드대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K-콘텐츠의 큰 인기와 한국이 최빈국에서 단기간에 역사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비결 및 미래지향적인 한·사우디 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카타르와 ‘역대 최대’ 5조 원 LNG선 건조 계약

윤 대통령·카타르 국왕 정상회담 관계격상 합의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카타르를 국민 방문해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10월 25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은 카타르의 수도 도하 아미리 디완 왕궁에서 타밈 국왕과 만나 정상회담을 하며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하며 한·카타르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양 정상은 외교·안보 분야의 소통채널을 확충하는 한편 ‘방산 군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방과 방산 분야에

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주요 방산 수입국으로 부상한 카타르와 방산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위원회 설립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구체적 성과를 실현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단일 계약으로는 한국 조선업 사상 최대인 39억 달러(약 5조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7척에 대한 건조 계약도 체결됐다. 이로써 4박 6일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민 방문을 거치면서 중동에서만 107조 원에 달하는 ‘경제 운동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기마부대와 낙타부대의 극진한 환영을 받은 윤 대통령은 “2024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카타르를 국민 방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지난 50년의 관계 발전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50년의 공동 번영을 함께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타밈 국왕은 이에 대해 “카타르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발전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절실한 것이라고 생각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5일(현지시간) 도하 아미리 디안 왕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 뉴스

한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기 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LNG 분야 양국 간 협력 확대하기로

이날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변동 성이 커지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 대응 하기 위해 카타르와 안정적 LNG 공급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다. 한국도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LNG를 카타르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2022년 전체 수입의 21%에 이르는 973만 톤 을 수입해 난방용과 발전용으로 공급 하고 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윤 대 통령은 카타르를 방문하는 동안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0월 25일 오후에 참 석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 기조 연설에서 “수교 후 약 50년간 카타르 는 에너지 공급을, 한국은 인프라 건

설을 담당하며 서로의 경제 발전에 상 호 보완적으로 이바지했다”며 “양국 간 LNG 도입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도 선박·터미널 등 LNG 전후방 산업 으로 협력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강 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상회 담에서 HD현대중공업과 카타르 국영 기업인 카타르에너지 간 LNG 운반선 건조 계약이 체결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 이날 체결된 계약으로 세계 LNG 운반선 수주에서 한국 기업의 점 유율은 74%에서 81%로 높아졌다. 한 화오선과 삼성중공업도 카타르와 30 여 척의 가격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 에 점유율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타밈 국 왕에게 우리 해운업체들이 참여 중인 LNG 운반선 계약 입찰에 관심을 기울 여달라고 요청했다. 양 정상은 LNG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을 LNG 운반선 건조, 운영, 유지·보수를 포함한 전후

방 산업 전체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양 정상은 양국 간의 협력이 인프라·투자·농업·해운·문화·인적교 류·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도 공감을 표했다. 서로가 강점을 보이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양국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양 정상의 공 통된 의견이었다.

또 양 정상은 중동지역 정세와 글로 벌 현안을 논의하고 앞으로도 역내· 국내 문제와 관련한 협력을 지속적으 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역 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카타 르가 관련 당사자들과 소통을 통해 역 내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한국도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 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 한 대응에 카타르가 협조해달라”고 요

윤 대통령,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 참석

양국 경제인 MOU 10건 체결 “새로운 50년 위한 파트너십 준비”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5일(현지시간) 오후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 과 카타르의 협력 관계는 경제인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수교 50년 만에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며 양국 경제협력의 성과를 평가했다.

양국 경제인 250여 명이 참석한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윤 대통령은 한·카타르 관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왔다 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카타르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줬다”며 “한국 은 카타르의 도로, 지하철은 물론 석유, 해수담수화 설비에 이르기까지 산업 기반 구축에 이바지해왔다”고 말했다. 이런 호혜적인 관계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 신산업, 전력기저재 양해각서(MOU)는 에너 지 산업 전반으로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선도국인 카타르와 우리나라 는 인재양성, 기술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국방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은 우수 한 국방기술과 방위산업 역량을 기반으로 카타르의 국방 역량 강화에 최적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과 정부기관 간 총 10건의 MOU가 체결됐다. 삼성물산과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 간 카타 르 내 태양광발전 수주 협력을 비롯해 MOU가 체결된 분야는 에너지, 신산업, 플랜트, 무역·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게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포럼을 계기로 양국이 “세계 경제의 대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50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함께 준비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청했다. 이에 타밈 국왕은 한국의 한 반도 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가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카타르 국빈 방문 첫날인 10월 24일 첫 일정 으로 박람회를 방문해 한국관 개관식 에 참석했다.

호혜적 협력 관계로 업그레이드된 양국 관계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는 사막기후 지역 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원 예행사로 80여 개국이 참가했다. 이 중 한국관에는 스마트농업 기술력을 알리는 야외정원이 꾸며졌다. 윤 대통 령은 한국관을 찾아 중동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기업인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자리 에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가 성공적으 로 치러지고 있는 것을 축하했고 타밈 국왕은 한국의 박람회 참여를 환영한 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후에는 MOU 서명식이 열 렸다. 양측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스 마트팜 협력 ▲건설·건축 분야 첨단기 술 협력 ▲국가 공간정보 협력 ▲중소 벤처 협력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 등 총 5건의 MOU가 체결됐다. 오찬 자 리에서는 윤 대통령이 타밈 국왕을 한 국으로 국빈 초청했다. 타밈 국왕은 이 를 승낙해 2024년 한국을 찾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양 국이 단순한 에너지 공급국·수입국 관 계를 넘어 호혜적인 협력 관계로 업그 레이드했다”며 “양 정상은 양국이 투 자, 중소기업, 농업, 스마트팜, 해운 등의 분야로 양국의 협력 분야를 확대 하기로 한 만큼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이 실행돼 양국의 기업 과 국민이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누 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10월 25일 하마드 빈 칼리파 대학을 찾아 ‘청년 리더와의 대화’를 갖고 카타르 청년세대를 만났

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의 청년들이 과학기술을 매개로 힘을 합 칠 때 시장과 공간이 넓어지고 디지털 영토는 상상하는 만큼 넓어질 수 있다 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카타르의 청 년들이 교류하고 세계 다른 나라 청년 들과 좋은 친구가 될 때 세계의 미래 는 밝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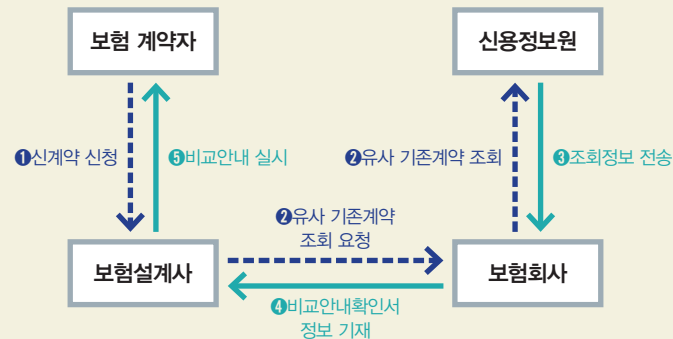
이 행사에서 한국문화를 좋아해 독 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카타르 대학 생은 향후 카타르와 한국의 문화를 긴 밀하게 연결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 는 포부를 한국어로 직접 발표했다. 카타르의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도 나 서 문화와 스포츠 협력으로 양국의 미 래세대 간 가교 역할을 꿈꿔왔다고 말 했다. 이들의 발언을 경청한 윤 대통 령은 “카타르 청년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감명 깊었다”면서 “한국과 카타르의 미래가 더 다양하게 지속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어? 비슷한 보험을 또 들었네!

금융당국, 유사 보험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연말 개시

유사 보험 '비교안내시스템' 계약조회 과정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앞으로 새로운 보험에 들 때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보장내용이 비슷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가 타사에 가입한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오는 12월 말 개시한다고 10월 24일 밝혔다. 기존에 가입한 상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비슷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소비자를 현혹해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보장범위만 바뀌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시키는 소위 '업셀링'이나 '리모델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이 같은 '승환(타 보험으로 갈아타는 행위)' 과정에서 기존 보험의 계약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는 부당

승환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03년부터 부당승환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상품 비교안내 의무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하지만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없어 보험회사 측에서도 이를 계약자에게 직접 물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비교안내시스템'을 신용정보원에 구축할 방침이다. 신용정보원은 보험사 요청 시 계약자가 앞서 가입한 보험상품을 확인하고 새로운 계약과 유사한 기존계약이 있을 경우 관련 정보를 보험회사에 전송하게 된다. 이를 전달받은 보험회사가 유사계약이 포함된 비교안내확인서를 작성해 계약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새로운 보험과 기존 상품을 수월하게 비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승환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 형식 등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한다. 특히 승환의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계약의 범위를 20개 군 상품분류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앞서 유사계약 범위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 3개 군으로 지나치게 넓어 비교안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보험협회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경찰관으로부터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듣고 있다. 사진 뉴스1

유치원 입학 '처음학교로'에서 편하게 신청

현장·온라인 교차신청 가능

2024학년도 국·공·사립 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가 11월 1일 시작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원서접수를 하는 입학관리시스템이다.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를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고 있다. 전국 모든 국·공·사립 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시스템 운영은 11월 1일 오전 9시에 시작한다. 2024학년도에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길 희망하는 학부모는 회원 가입을 한

뒤 유아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일반모집은 사전접수와 본접수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모집 유형별로 3희망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중복 선발은 제한되므로 1희망 유치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우선모집은 자격이 충족돼야 한다. 법정저소득층·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는 온라인 자격 검증으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유치원별 우선모집 대상은 모집요강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학년도 원서접수는 현장·온라인 교차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현장·온라인 신청 중 한 가지 방법을 택해야 했다. 또한 PC와 모바일에서 동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동시접속자 과다로 인한 접속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발 결과도 PC와 모바일에서 10분 간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직장건강보험 자격 득실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방과 후 과정 지원 때 맞벌이 증빙을 위한 학부모의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시스템 접속 먹통 없어진다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정부 시스템의 접속 장애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정부 시스템은 하나의 대형 통합방식으로 구축돼 오류가 발생할 경우 전체 시스템을 탐색해 원인을 찾아내야 했다. 접속장애에 대한 대처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앞으로는 작은 블록처럼 구축을 나눠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0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클라우드 네이

브 중심,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2024년부터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공공기관은 민간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신규 클라우드 전환물량의 70% 이상(기존 시스템은 50% 이상)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와 정부 시스템의 연계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불법개통 ‘PASS 앱’으로 막는다

내 명의 휴대전화 개통 현황
실시간 확인

경찰에 압수된 불법 개통
휴대전화(대포폰)와 유심칩.
사진 뉴시스



노인학대 조사 거부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물린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불법 개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내 휴대전화 번호가 불법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것을 즉시 차단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PASS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소비자가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협약을 맺었다고 10월 24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PASS 앱을 설치해 가입하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현황을 실

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또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이외 신규가입·명의변경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내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 불법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박·대출 관련 등 대부분의 불법문자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해 대량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PASS 앱 미가입자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누리집(www.msafar.or.kr)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제공하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Msafer)는 휴대전화 불법 개통 등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통신서비스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1월부터는 카카오뱅크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주요 은행과 카드사 등으로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자 부양 부담 순이었다.

개정령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노인학대와 관련한 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각 언론사에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은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등과 협의해 수립한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면허 취소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술 취한 상태에서
시동 못 걸게

법제처가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개정법을 2024년 10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일정기간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를 부착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5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대상이다.

경찰은 2001년부터 7차레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도로교통공단에서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과 시민 이동준 씨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2023년 마지막 ‘숙박세일 페스타’ 3만 원 할인권 받으세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가 10월 27일 시작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5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쓸 수 있는 3만 원 할인권을 1인 1매에 한해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할인권은 11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와 추석연휴 기간에 할인권을 썼더라도 이번 행사 기간에 다시 할인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숙박세일 페스타에는 11번가, 인터파크, 위메프, 쿠팡트래블 등 49개 온라인 여행사와 3만여 개 국내 숙박시설이 참여했다. 할인권 발급 및 예약은 행사에 참여하는 온라인 여행사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내 해당 행사 관련 페이지(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1670-3980)를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소프라이즈! 한우 최대 5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가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해 한우 할인행사에 나선다. 행사에서는 한우를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1등급 100g을 기준으로 등심은 8610원, 불고기·국거리류는 2330원 수준이다. 한우자조금이 운영하는 온라인 한우장터(www.hanwooboardmarket.com)를 이용하면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10월 26일 시작된 행사는 11월 5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최근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생산 농가를 돕는 동시에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농식품부는 전국에서 현장 할인 행사도 마련한다. **K**

조윤 기자

주최 불분명한 행사 안전관리 강화 인파 밀집위험 예측 시스템도 가동

행안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상황 발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1 새로운 인파 안전관리체계 정착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인파밀집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안전조치를 하는 새로운 체계를 확실하게 마련

2 기관 간 소통·협력 기반 현장대응역량 제고
재난대응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기관 간 공동대응 활성화 등 현장대응역량 강화

3 디지털 기반의 위험예측·공유 체계 강화
재난안전데이터의 적극적인 수집·활용을 통해 재난 현장의 위험징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예측시스템 구축

4 재난피해지원을 강화하고 안전문화를 확산
변화된 재난환경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난피해의 기준과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신고를 활성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

행정안전부는 10월 25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편을 목표로 만들어져 3월에 확정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차관급 이상이 주재하는 범정부 점검회의를 격주 단위로 운영하는 등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국가안전시스템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개선돼왔다. 첫째는 새로운 인파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주최·주관이 불분명한 축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행안부는 법률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지자체가 철저히 인파 안전을 관리하도록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세 차례 배포했다. 또 진해군항제나 서울 세계불꽃축제처럼 대규모·고위험 지역축제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도 늘어나 2022년보다 1.8배 증가한 95건이 실시됐다.

한편으로는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위험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지고 있다. 경찰은 1월부터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했다. 10월 27일부터는 인파밀집도를 분석해 관계기관에 위험을 알리는 ‘인파관리시스템’도 현장에 적용됐다. 인파관리시스템은 신고번호가 다르더라도 신고 발생 지점 반경 50m 이내에서 1시간 내 3건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반복신고로 자동 감지해 112 요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현장으로 변화

종합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달라진 두 번째 모습은 기관 간에 소통·협력 기반으로 현장대응 역량이 제고됐다는 것이다. 특히 소방·경찰·지자체 등 1차 대응기관 간에 상황공유와 협력적 재난대응체계가 강화됐다. 경찰·소방·해경 간 공동대응이 요청되면 현장출동이 의무화됐고 현장에 출동할 때는 상대 출동대원의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10월 24일 도입됐다.

다수의 사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체계가 정비

를 위해 운영하는 ‘구급지휘팀’을 시범 운영 중이다. 구급지휘팀은 현장 구급을 지휘하고 재난응급의료소 운영을 총괄·조정하는 조직이다.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설치 근거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제출돼 국회를 통과했다.

지자체의 재난안전 상황관리 조직도 강화됐다. 2023년 초 49개에 불과하던 시·군·구 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은 10월 26일 현재 108개로 늘어났다.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재난안전 인력에 대한 승진가점을 의무화하고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재난안전수당’ 신설도 추진 중이다.

종합대책에 따라 디지털을 기반으로 위험을 예측하고 공유하는 체계가 강화됐다. 먼저 위험상황을 즉각 공유하기 위한 112·119 영상신고가 활성화됐다. 112 영상신고의 경우 월평균 6448건이 접수됐는데 2022년 월평균 신고 건수가 3714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7배 증가한 수치다. ‘119 구급 스마트시스템’도 개발돼 12월 중 개시될 예정인데 응급환자의 생체징후와 중증도, 이송 정보 등 중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정보공유체계 강화를 위해 행안부는 기관별로 분산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 유형별로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이를 위해 3월 710종의 데이터를 개방하기도 했다. 실제로 4월 강원 강릉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1월 3일까지 2300개 기관 참여 대규모 훈련

10월 23일부터 ‘2023년 3회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시작됐다. 2020년 시작한 안전한국훈련은 208개 기관이 주관하고 약 2300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11월 3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다중밀집시설의 대형화재, 산불, 도시철도 사고 등 주로 가을·겨울철에 발생할 위험이 크고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유형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부산시와 해운대구, 부산교통공사는 10개 참여기관과 함께 도시철도 화재와 탈선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기관사와 역무원이 승객을 대피시키고 화재를 진압하는 등 재난 초기 자체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것이다. 충청남도과 당진시, 한국동서발전은 화재에 따른 전력공급 중단 사고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가정해 훈련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기관마다 훈련 중점사항이 계획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훈련에 대한 평가를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훈련의 성과와 미비점을 분석해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10월 23일 서울 강남구 학여울역과 SETEC에서 민·관·군·경·소방 관계자들이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산불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주변의 가스충전소와 사업장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 2차 피해가 방지된 사례도 있다.

종합대책은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문화도 확산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농·어업 분야로 제한되던 재난피해 지원대상이 소상공인까지 확대됐고 주택지원금의 지원 기

준도 올라갔다.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개선해 안전신고 메뉴를 신설했고 실제로 안전 관련 신고 건수는 2022년에 비해 28%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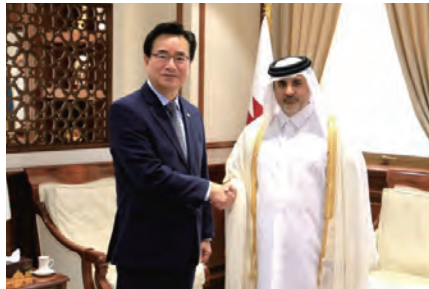
앞으로도 정부는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점검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특별팀(TF)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주기적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에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K**

정광성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국, 카타르 등 중동 식량안보 중요한 파트너로”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10월 24일 알 수베이 카타르 자치정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스마트팜 산업과 연구개발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카타르는 사막기후를 극복하고 신선채소와 사료작물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농업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한국의 농산업체가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 장관은 “카타르는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전략을 통해 토마토, 오이 등 주요 신선농산물의 자국 내 생산기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양국 정부 간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을 시작으로 카타르 경제실무단 방한 및 한국 스마트팜 연구진의 카타르 방문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공공부문의 교류를 발판으로 우리 농산업이 중동 식량안보 강화에 중요한 파트너로 성장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강명승 통신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1만 개사 이상으로”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0월 2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연동제 현장안착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전국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협회·단체와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간담회는 지난 5개월간 진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연동제의 현장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장관은 “동행기업이 지난 9월 11일 4208개에서 한 달 사이 8120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법 시행에 따라 연동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라면서 “연동제에 참여 중인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 감소 등 효과를 체감할 것이다. 더 많은 기업이 연동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행기업을 연말까지 1만 개 이상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슬아 통신원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 기할 것”

사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형렬 청장은 10월 25일 정부세종청사체육관을 방문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이용객, 현장 관계자를 만났다. 정부세종청사체육관은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행복도시 시민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8월 1일 개관했다.

이날 김 청장은 체육관 개관 1주년을 맞아 안전관리 상태, 전담인력 배치 현황 및 체육관 정기점검 실시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청장은 “정부세종청사체육관은 다중이용시설로 철저한 안전관리와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용객의 건의 및 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진 통신원

정리 정광성 기자

노동

한국노총·민주노총 회계공시 참여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동참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이 참여하기로 밝힘에 따라 정부의 노동개혁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10월 24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회계공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하루 전인 23일 한국노총도 회계공시를 결정했다.

정부는 10월 1일부터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이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양대 노총이 지난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15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노조가 회계공시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졌다. 정부는 애초 2024년 1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제도 시행을 앞당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회계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으로 총 673 곳이다. 이 중 한국노총 및 산하 조직이 303곳, 민주노총 및 산하 조직이 249곳으로 82%를 차지한다.

회계공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1월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labor.moel.go.kr/pap)을 통해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된다. 조합원은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알권리를 보장받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어 선택권과 단결권을 보장받는다. 또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10월 1일 이후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소속 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확인한 뒤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10~12월분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회계공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조와 계속 소통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노조의 투명한 회계공시가 확산되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노동조합이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공시 안내서를 마련하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하는 등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K

유슬기 기자

더 든든하게

국민 속으로

정책서민금융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기조'에 맞춰 정부 전 부처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대외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통해 민생부담 완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곳을 살피며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중 하나로 금융위원회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 방안을 속속 가동하고 있다. 저신용·저소득자가 성실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탄탄한 서민금융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크게는 ▲생활안정자금 ▲고금리대안 ▲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자산형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신용·저소득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이다. ▲청년층이 대상인 햇살론 유스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햇살론뱅크 ▲저신용자 전용 신용카드인 햇살론카드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으로 구성됐다.

햇살론유스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목표로 한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19~34세, 대학(원)생·학점은행제 수강자·미취업청년, 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다. 대상자는 반기당 300만 원, 총 1200만 원을 가장 15년(거치 8년, 상환 7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첫 300만 원을 보증받아 이용했다면 이후 대출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9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보증료 0.1~1.0%를 포함한 3.6~4.5%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자가 부채 및 신용도를 개선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이다. 은행권 출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대상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했으며 부채 또는 신용도가 1년 전보다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다. 신용평점과는 관계없이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들은 최대 2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저신용자도
저소득자도
첫 출발 청년도
효과 체감하게

채무 많고 신용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렵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채무조정, 자금지원, 취업지원, 복지연계 등 모든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지원한다. 채무나 신용문제로 곤경에 처했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원스톱 상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방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화 서민금융콜센터(1397)

구분	지원 내용
자금 지원	근로자 햇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 지원
	햇살론 유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19~34세 대학생·청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 지원
	햇살론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대부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대출 지원
	햇살론뱅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이용해 부채·신용도가 개선된 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은행권 대출 안착 지원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바퀴드림론, 안전망대출,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은 신용평점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 신규 이용 지원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정책서민금융(햇살론15)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 이용이 불가피한 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대출 지원
	미소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평점이 낮거나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 창업·운영자금, 시설자금 등 무담보·무보증 지원
채무조정 지원	맞춤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에게 맞는 신용대출을 찾기 어려운 분 본인에게 맞는 금융회사 대출 가능 여부·한도·금리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등 지원 공적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지원
취업·복지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및 복지지원이 필요한 분 센터 내방객 중 취업 및 복지가 필요한 분을 연계 지원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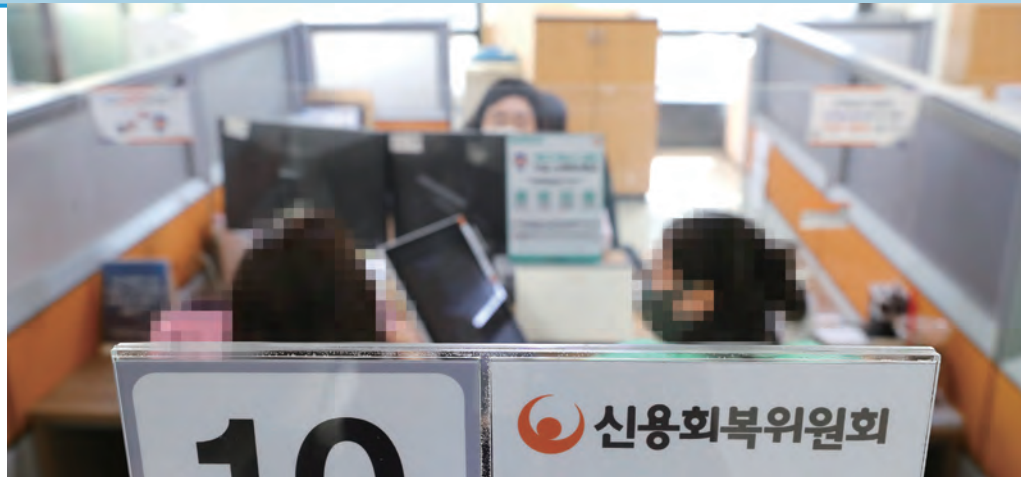
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다. 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하다.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못해 할부, 포인트 등 혜택에서 소외된 저신용자들이 금융상품 선택권을 갖고 건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자는 연가처분소득 600만 원 이상이고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또는 NICE 기준)의 신용카드 미보유자이자 햇살론카드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증금액은 월 최대 200만 원, 보증기간은 카드 이용기간과 동일하게 최대 5년이다. 카드 이용한도는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보증한도에서 20만 원을 차감하고 부여한다.

근로자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과 무관하게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다. 3년 또는 5년

동안 최대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금리는 보증료(1.0~2.0%) 별도로 11.5% 이내다.

금융위는 단순히 지원책을 세우는 것 외에 지원 제도의 규모를 늘리는 등 서민·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대책도 뒷받침한다. 우선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유스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 지원해 2023년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0조 원에서 1조 원 이상 늘린다. 근로자햇살론은 2조 6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햇살론유스는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공급 규모를 넓힌다. 9월 20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서민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민의 자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4년 예산안'을 수립했고 3월부터 시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시민이 신용회복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져 정책 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상 더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

행된 소액생계비대출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24년에도 2023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2024년 금융위 세출 예산안은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4조 564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 서민금융 지원 금액은 1조 6041억 원에 달한다.

고금리대안·주거자금·자산형성 등

고금리대안으로는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5 ▲연체 경험 때문에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사람을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부업조차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의 재기를 위한 소액생계비 대출이 있다.

주거자금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신용회복지원자에게 지원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했거나 상환을 완료한 지 3년 이내면서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사람,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신용회복 지원 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사람이 해당된다.

자산형성 상품의 대표인 청년도약계좌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며 5년 만기를 유지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월 최대 6%, 2만 4000원)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10월 한 달 동안 7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여금 2만 1000원, 40만 원 납입 시 기여금 2만 4000원이 생긴다.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재가입은 가능하다.

가입자 요건은 나이뿐만 아니라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인소득의 상한선은 7500만 원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는 적용된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이밖에 ▲저소득청년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는 미소드림적금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통시장 소속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창업·운영자금 지원 상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이들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는 소액보험 상품이 있다.

7월 14일부터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로 특례운용 중인 햇살론 또한 민생정책의 일환이다. 기존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용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왔다. 특례운용이 되면서 보증비용은 95%에서 100%로 확대되고 가산금리는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이 2.5%로 낮아졌다. 보증료율도 0.2%포인트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됐다.

취약계층의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도 채워지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 지원 시 복합 상담을 병행하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일자리 및 복지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 맞춤형 금융교육도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져 정책 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상 더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K]

이근하 기자

국민이 뽑는 민생 규제혁신 BEST 5

윤석열정부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꼽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 투표는 국민 불편 해소, 중소기업 경영 활력 회복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11월 7일 밤 12시까지 2주 동안 규제혁신 블로그와 누리소통망(SNS) 페이스북에서 진행된다. 투표 결과 상위 5개는 ‘국민이 뽑은 민생 규제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하에 ‘현장 중심 민생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민생 규제혁신 사례

- 1 입국 시 신고 대상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99%는 신고대상 물품 없음)
- 2 ‘출국장’이 아닌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 단계적 도입 추진(부산항 시범 운영 중)
- 3 여객선으로 냉매·용접용 가스 운반 허용, 242개 섬 지역의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 가능
- 4 청소년 수련지구 내 목욕장업(찜질방 등) 허용
- 5 지방대는 결손인원·편입학여석 활용해 학과 신설·증설 가능
- 6 로봇 무인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분류, 장소 제한 없이 어디서나 영업 가능
- 7 30만~100만 원인 신규계좌 이체한도를 상향해 금융 취약계층 지원
- 8 전국 독서실 열람실 남녀좌석 구분 폐지
- 9 편의점 외벽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 부착, 편의점 종사자 안전 제고
- 10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마련, 밤·휴일에도 약품 구매 가능
- 11 해외지구 관세 납부 및 환급이 모바일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12 인터넷 포털 등에서 반기별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
- 13 학생·일반인 대상 공유주거(가실 등 공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대형기숙사’ 신설
- 14 미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추진
- 15 식품접객업소 간판에 세부업종 표시 의무 폐지, 자영업자 자율성 확대
- 16 산간지역 드론배송 인프라 구축으로 공급자와 사용자 편의 모두 증진
- 17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의 운동·휴식시설 허용
- 18 경·소형, 중형 승합차·화물차의 검사주기를 완화해 자영업자 부담 경감
- 19 택배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차체 앞면 광고를 허용해 식별 가능성 제고
- 20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주유차량의 이동주유 허용, 재난대응력 제고

자료 국무조정실

더 든든하게

국민 속으로

코로나19·인플루엔자(고령층) 무료 접종

변이 대응한 신규 백신 전 국민 무료 고위험군부터 순차 접종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코로나19 신규 백신의 동절기 접종이 10월 19일 시작했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으나 고위험군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여전히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고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철 환경은 코로나19 확산에 유리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하며 겨울철 재유행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해 백신접종이 필수적”이라며 “고위험군은 접종을 미루지 말고 효과가 높은 신규 백신으로 접종하길 적극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백신은 XBB.1.5 단가백신(화이자, 모더나)이다. 2022년 동절기 접종 백신인 BA.4/5 2가백신과 비교했을 때 현재 유행 중인 변이에 약 3배 높은 효과를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과 12~64세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우선 시작됐으며 소아(5~11세)·영유아(6개월~4세) 고위험군,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는 11월 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접종 기간은 2024년 3월 31일까지며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 가능하다. 이전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기간 안에 1회만 맞으면 된다.

12세 미만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계획은 대한소아감염학회의 의견을 토대로 소아청소년 분야 전문가의 자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사진 뉴시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대상 및 접종 기간

	접종 대상	접종 기간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2010년 1월 1일~ 2023년 8월 31일 출생	2회 접종 대상자*	2023년 9월 20일~2024년 4월 30일
	1회 접종 대상자	2023년 10월 5일~2024년 4월 30일
	임산부	2023년 10월 5일~2024년 4월 30일
65세 이상 어르신	75세 이상 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023년 10월 11일~2024년 4월 30일
	70~74세 1949년 1월 1일~1953년 12월 31일 출생	2023년 10월 16일~2024년 4월 30일
	65~69세 1954년 1월 1일~1958년 12월 31일 출생	2023년 10월 19일~2024년 4월 30일

* 생후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 또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실시

자료 질병관리청

문을 거쳤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품감독국(EMA) 등은 XBB.1.5 신규 백신 허가 연령을 6개월 이상으로 정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2세 미만의 XBB.1.5 신규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소아를 포함해 이전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영유아는 모더나 백신을,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던 영유아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된다.

75세 이상 노인부터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정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을 권고한다. 동시접종 시 유효성과 안정성은 국내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며 미국 등 해외 주요국도 동시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을 같이 접종할 수 있다. 다만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해야 한다.

접종 사전예약은 온라인(ncvr.kdca.go.kr) 또는 전화예약(1339 콜센터, 지자체 콜센터 및 의료기관)을 통해 가능하고 사전예약 없이도 접종할 수 있다. 배우자, 자녀 등의 대리예약은 대리인이 본인 인증한 뒤 접종 대상자와 관계, 접종 대상자의 정보 등을 확인해주면 된다.

75세 이상 노인부터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접종은 무료로 진행된다. 접종 기간은 ▲75세 이상은 10월 11

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70~74세는 10월 16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65~69세는 10월 19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다.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이러한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인근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가 무료 지원하는 백신과 의료기관에서 유료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는 다르지 않다. 구매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중 일부는 국가에서 조달 구매를 통해 구매해 배포하고 일부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제조사를 통해 직접 구매하기 때문이다.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방어항체가 형성된다. 건강한 성인은 70~90%의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백신과 유행바이러스의 일치 정도, 개인 면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백신은 감염 예방 외에도 중증화와 사망 확률을 낮출 수 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5년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서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K**

이근하 기자

한계를 넘고 장애를 넘어 21개 종목 208명 열정은 모두 금메달

다시 한 번 중국 항저우에서 땀과 눈물의 드라마가 펼쳐졌다. 코로나19로 1년 미뤄진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간 열렸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아시안게임이 폐막한 뒤 열리는 장애인스포츠 대회로 올림픽과 함께 치러지는 패럴림픽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장애인체육 강국인 한국도 이번 대회에 21개 종목 선수 208명과 임원 137명 등 총 345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이번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구호는 '마음이 통하면, 미래가 열린다'다. 모든 이를 환영하고 승리를 꿈꾼다는 의미를 담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애물 없이 공유하는 대회 모습은 개최식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었다. 항저우가

본고장인 꽃 오스만투스가 만발한 경기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하나가 됐다. 남자 태권도 주정훈과 여자 골볼 김희진이 앞장선 한국 선수단도 태극기를 흔들며 입장했다.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종목에서 도전을 펼친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긴 선수는 여자 육상 200m의 전민재였다. 장애인 육상의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전민재는 이번 대회에서 31초 27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해 시상대에 올랐다. 전민재는 2012년 런던패럴림픽과 2016년 리우패럴림픽에서 은메달 3개를 수확한 바 있다. 아시아 무대에서는 최강자의 면모를 과시했다. 2014년 인천, 2018년 인도네시아 대회에서 100m와 200m 2관왕 2연패를 달성했다. 46세라는 나이도 그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았다. 전민재는 200m 경기가 끝난 후 "2024년 파리패럴림픽까지 선수생활을 생각하고 있다"며 "나이는 상관 없다"는 수상소감을 남겼다.

첫 금메달은 사이클에서 나왔다. 남자 사이클 김정빈은 경기 파트너 윤중현과 함께 남자 사이클 시각장애 4000m 개인 추발에서 말레이시아 조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김정빈이 금메달을 획득한 '탠덤 사이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조를 이루는 종목이다. 앞쪽에서 비장애인 파일럿이 핸들을 조작하며 페달을 밟고 뒤쪽에서 장애인 선수가 함께 페달을 밟아 질주한다. 중학생 때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아 시각을 잃은 김정빈은 다양한 운동을 하며 태극마크까지 단 노

“이번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구호는 ‘마음이 통하면, 미래가 열린다’다. 모든 이를 환영하고 승리를 꿈꾼다는 의미를 담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애물 없이 공유하는 대회 모습은 개최식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었다.”

력과 선수다.

한국 장애인 태권도의 간판 주정훈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애인 태권도는 이번 항저우 대회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정식 종목이 됐다. 주정훈은 태권도 종주국의 자존심을 걸고 10월 25일 남자 K44 겨루기 80kg 이하급 경기에 나서 결승에서 이란의 알리레자 바흐트를 꺾었다. 주정훈이 장애인 태권도 무대에 모습을 보인 것은 2018년의 일이다. 그는 2020년 도쿄 패럴림픽 75kg급에서 동메달, 2023년 6월 세계 파라태권도그랑프리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금메달 유망주로 꼽혔다. 주정훈은 경기가 끝난 후 “무릎에 큰 부상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합에 들어가니까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내년까지 열심히 달려서 파리패럴림픽에서도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겠다”고 말했다.

남자 유도 이정민은 국가대표 은퇴 경기에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이정민은 10월 25일 열린 남자 유도 J2 90kg 이하급 결승전에서 카자흐스탄의 아만줄 잔보타를 꺾고 금메달을 따냈다. 81kg급에 출전해 우승했던 2018년 인도네시아 대회에서보다 체급을 한 단계 올려 따낸 금메달이기 때문에 더욱 값졌다. 이정민은 “10년 가까이 해온 국가대표 생활을 끝낸다”며 “앞으로는 국내 대회에 출전하고 후배 양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은 나이



10월 25일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남자 태권도 80kg 이하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주정훈이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사진 대한장애인체육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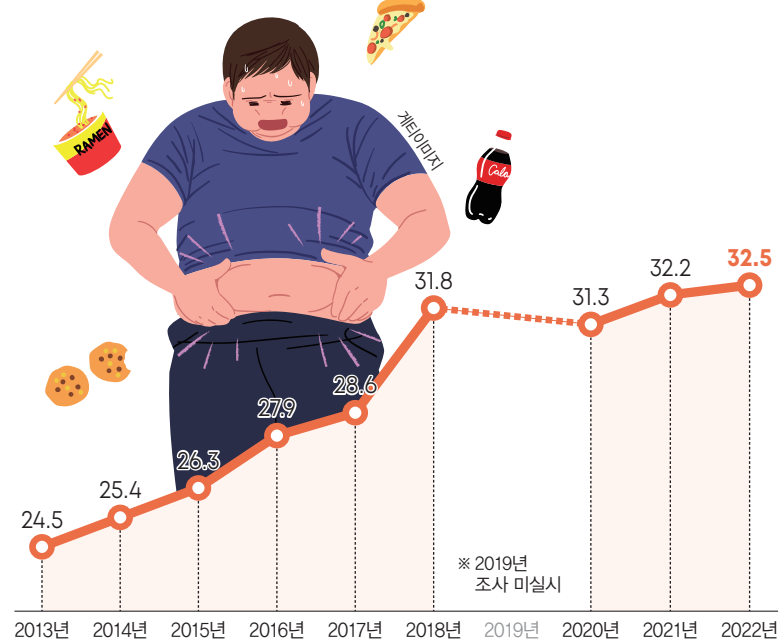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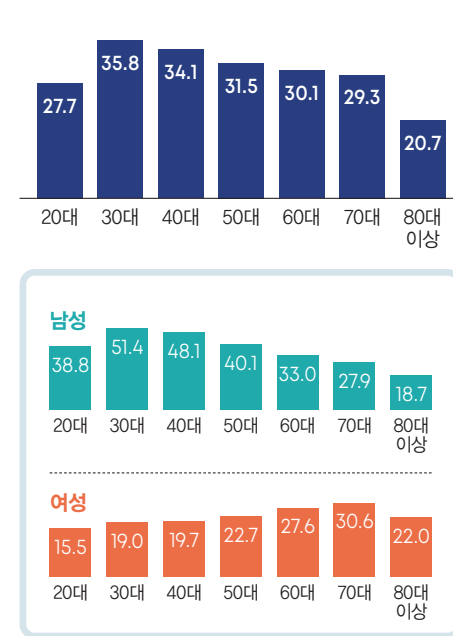
도 경력도 다양했다. 남자 탁구 국가대표팀 신승원의 나이는 54세다. 체력 소모가 심한 종목의 특성상 10~20대 선수가 즐비한 가운데서 유독 눈에 띄는 '노장'이다. 신승원은 10월 24일 열린 남자 탁구 단식 8강에서 일본의 이와부치 고요에게 져 탈락하고 난 뒤에도 “내년에도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서서 2024 파리패럴림픽에 출전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직 교사로 선수생활을 병행하는 남자 휠체어 육상 윤경찬은 비록 메달은 수확하지 못했지만 “경기를 즐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 기간 중 한국 장애인스포츠와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항저우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밤' 행사에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K-컬처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행사에 참석해 “한국은 장애인체육 분야에서 국제스포츠캠프, 스포츠과학세미나, 스포츠기술장비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각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스포츠를 통해 자유와 연대를 굳건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

김효정 기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0월 23일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역도 경기가 열린 사오산 스포츠센터 체육관을 찾아 선수단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국내 성인 비만율
(단위: %)2022년 성·연령대별 비만율
(단위: %)시·군·구별 비만율(2020~2022년)
(단위: %)

비만예방 위해 필요한 신체활동

-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
일주일에 150~300분,
또는 고강도 유산소 신체활동
일주일에 75~150분 하기
- 근력운동
일주일에 2일 이상 하기
- 앉아있는 시간
최소화하기



자료 질병관리청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 비만율 높은 지역 건강수명 낮아

질병관리청 '지자체별 비만율 현황' 발표

2022년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32.5%로 전년 대비 0.3%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인 셈이다. 질병관리청은 10월 18일 '지자체별 비만율 현황'을 발표했다. 중대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강관리를 당부하기 위함이다. 비만율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kg(체중)/㎡(신장))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이 자가 보고한 체중과 신장을 토대로 산출했다.

로 산출했다.

2013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해오던 성인 비만율은 2018년 31.8%에서 2020년 31.3%로 다소 낮아지기도 했으나 2021년(32.2%)부터 다시 높아졌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신체활동이 위축되자 비만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 비만율은 30대에서 3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 34.1%, 50대 31.5%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비만율이 40.2%로 여성의 22.1%를 크게 웃돌았다.

남성은 30대에 비만율이 51.4%로 가장 높았고 40대 48.1%, 50대 40.1%, 60대 33.0%, 70대 27.9%로 조금씩 낮아졌다. 반대로 여성은 20대 15.5%, 30대 19.0%, 40대 19.7%, 50대 22.7%, 60대 27.6%, 70대 30.6%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만율도 상승하는 양상을 띠었다.

시·도별 비만율은 제주가 36.5%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27.7%로 가장 낮았다. 제주는 2021년에도 36.0%로 가장 높았으며 그해 세종도 27.5%로 가장 낮았다.

17개 시·도 중 전년 대비 비만율이 악화된 곳은 13개다. 울산 비만율이 2.4%P 높아진 33.4%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어 충북(1.9%P), 전남·경남(1.5%P) 순으로 나타났다. 비만율이 개선된 시·도는 하라폭 순서대로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등 4곳이다. 인천은 1.9%P 떨어져 32.6%를 기록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평균으로 측정한 시·군·구별 비만율은 강원 철원군 40.2%, 강원 화천군 39.8%, 제주 서귀포시 동부 39.6% 순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대전 서구 23.5%, 경기 과천시 23.6%, 대구 수성구 24.6% 순이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비만율이 높은 시·군·구 10곳 중 8곳의 건강수명이 2020년 기준 전국 평균인 70.9

세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지역은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해당 지역은 강원 인제군(67.5세), 전북 부안군(67.6세), 충북 보은군(68.4세), 인천 옹진군(68.5세), 경기 포천시(68.9세), 강원 철원군(69.2세), 강원 정선군(69.5세), 강원 화천군(70.0세)이다. 질병관리청은 강원 인제군, 인천 옹진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 지역의 비만 관련 심층조사를 연구하고 있다. 11월에는 지자체별 '당뇨병 진단 경험 현황'을 분석해 공유할 예정이다.

지 청장은 "비만은 높은 위험성 대비 질환이라는 인식이 낮은 데다 중대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인 스스로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에 따르면 만 3~5세의 유아는 매일 활발하게 다양한 신체활동을 하고 하루 동안 앉아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 6~18세의 아동 및 청소년은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활동을 매일 1시간 이상 하고 근력운동을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는 것을 권장한다. 만 19~64세의 성인은 중강도 유산소 활동을 일주일에 150~300분 하거나 고강도 유산소 활동을 일주일에 75~150분 하는 것이 좋다. 근력운동은 일주일에 2일 이상 권한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중강도 유산소 활동은 일주일에 150~300분, 고강도 유산소 활동은 일주일에 75~150분을 하면 좋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평형성 운동을 하는 것도 유익한 생활습관이다. **K** 이근하 기자

ADHD 전문가, 반건호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성인 ADHD 환자 급증 방치 땀 우울·공황장애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치료의 첫걸음”

‘대화를 할 때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다 불쑥 상대의 말을 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업무를 제때 끝내기 어렵고 해야 할 일을 꼭 한 가지씩 빼먹는다. 정리정돈이 잘 안 된다. 생각이 많아 밤에 잠이 들기 어렵다. 무기력하게 있다가도 어떤 일은 모터가 달린 것처럼 지나치게 열중한다.’

내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를 의심해볼 수 있다. ADHD는 아동기 남아에게만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다. 최근에는 성인 ADHD 환자도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ADHD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 14만 7283명 가운데 41.6%(6만 1331명)가 성인 환자였다. 국내 의학계에서는 성인 ADHD 환자 수를 82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높은 관심과는 별개로 질환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와 편견도 많다. ADHD를 질병이 아닌 개인의 성향으로 보거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아지는 질환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ADHD는 전전두엽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느려서 나타나는 ‘뇌 질환’이다.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행동을 통제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평생 증상을 안고 살 수도 있다.

반건호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ADHD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인물이다. 37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며 ADHD가 아동

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느끼고 2012년 ‘성인 ADHD 진료지침’을 발표했다. 국내에 ADHD 개념이 자리잡기 전 한국형 ADHD 검사·평가·교육도구 개발에도 참여했다. 2022년에는 ADHD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서 ‘나는 왜 집중하지 못하는가’를 펴냈다. 이어 지난 7월 스웨덴 옅살라데 정신의학과 로타 보그 스코글런드 교수의 책 ‘여성 ADHD-투명소녀에서 번아웃 여인으로’를 번역하는 등 여성 ADHD 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반 교수는 “‘사고뭉치’, ‘공부 못하는 아이’ 등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편견”이라며 “ADHD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ADHD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유가 뭔가?

과거 ADHD는 청소년기에 이르면 점차 회복되는 질병으로 봤다. 그러다 1987년부터 이 질환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가 바뀌면서 성인 환자까지 인정하게 됐다. 진단 기준 연령도 높아졌다. ADHD는 성인이 돼 갑자기 발병할 수 없다. 어린 시절부터 증상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연령기준이 2013년 이후 7세에서 12세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기가 더 쉽다는 점도 환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여성 환자의 증가다. 코로나19 이후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20~30대 여성이 10배 이상 급증했다. 우리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가장

반건호 교수는 37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일했다.
한국형 ADHD 검사·평가·교육도구
개발에 참여한 국내 대표적인
ADHD 전문가로 손꼽힌다.
사진 C영상미디어

취약한 계층이다. 2030 여성들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ADHD로 진단을 받는 사례가 늘었다. 우울증은 성인 ADHD의 대표적 증상이다. 더불어 질병에 대한 정보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스스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늘었다.

ADHD는 선천적 요인이 크다고 들었다. 유전 가능성이 높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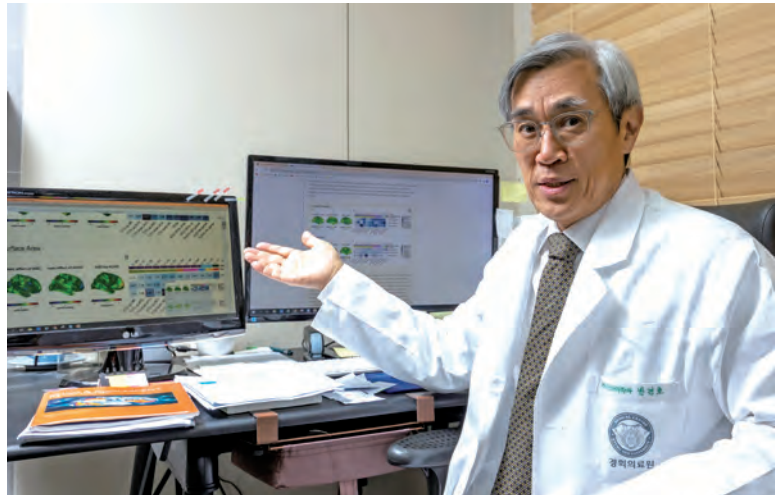
많은 정신질환은 선천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이다. 즉 ADHD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도 주변 환경에 의해 증상이 발현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다. 현대사회는 ADHD에 취약하다. 도시생활,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는 증상이 쉽게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요인 중에 가장 강한 것이 키다. 키는 100% 부모 한 쪽을 따라가게 돼 있다. ADHD는 키 다음으로 유전 요인이 강하다. 통계적으로 70%는 유전된다고 본다. 실제로 아동 ADHD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부모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성인 환자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뭔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울’이다. ADHD 환자의 특징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잘 공감하지 못하는 거다. 어릴 때는 이게 ‘억울함’으로 나타난다. 진심으로 하는 행동인데 친구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사람으로 보고 점점 따돌리게 된다. 그러면 학교생활이 재미없어지고 그런 시간이 지속되면 결국 우울해진다. 또 다른 어려움은 자꾸 미루게 되는 습관이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 집중이 안 되니 자꾸 미루고 결국 약속을 못 지킨다. 직장생활은 모든 게 약속이다. 그러니 회사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다. ‘나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떨어지기 쉽다.

ADHD라고 하면 보통 산만하고 시끄러운 사람을 떠올리지 않나?

ADHD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계속 바뀐다. 특히 사춘기 전후로 과잉행동은 차츰 줄어든다. 하지만 과잉행동이 사라진 게 아니라 형태가 달라지는 거다. 머릿속으로 안절부절못하고 불안정해진다. 또 산만함과 반대되는 대표적 증상은 ‘멍 때리는’ 것이다. 의학용어는 아니지만 이걸 ‘조용한 ADHD’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 중에는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있다. ADHD가 있으면 학업에 어려움을 겪기 쉽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학업 성적이 나쁘다는 건 아니란 얘기다. ‘공부 못하는 아이’, ‘사고 뭉치’ 등의 이미지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 질환에 대한 편견이다.



ADHD는 행동을 통제하고 집중력을 유지시키는 전전두엽의 발달이 느려 나타나는 ‘뇌 질환’이다. 반 교수가 뇌 사진을 보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직접 번역한 스코글랜드 교수의 책에서는 여성 ADHD 환자를 ‘투명소녀’, ‘번아웃 여인’이라고 표현했다. 여성 환자는 또 다른 특성이 있나?

과거에는 ADHD를 남자아이에게만 발병하는 질환으로 여겼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동기 ADHD의 남녀 비율은 5대 1로 남아가 우세하지만 성인기에 접어들면 1대 1로 성비가 갈아진다. 연령에 따라 성비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가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하는 탓이다. 남자아이가 문제행동을 보이면 치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고치려 하는 반면 여자아이는 문제행동 자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압박한다. 더욱이 여성들은 자기문제를 감추고 스스로 교정하려고 애쓴다. 진짜 문제는 내면의 혼란을 감추기 위한 태도가 과장된 완벽주의, 강박증, 불안, 섭식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다. 여성 ADHD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모범생(투명소녀)’, 완벽을 추구하다 지친 ‘번아웃 여인’으로 표현되는 이유다.

증상의 양상이 무척 다양하다. 진단은 어떻게 내리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는 자가 테스트인 자기보고(스크리닝)다. ‘중요한 일을 끝내고 나서 마무리 짓는 데 어려웠던 적이 있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모임에서 얼마나 자주 이탈하나’ 등 ▲주의력 ▲과잉행동 ▲충동성을 항목별로 평가한다. 이후 기계로 주의력검사(CAT)를 한 뒤 의료진이 직접 환자를 인터뷰한다. 자기보고 검사에서 ‘약속을 자주 까먹는다’는 항목이 나오면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인지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식이다. 또한 면담을 통해 증상이 ADHD 때문인지를 명확히 한다. 개인의 기질이나 경험, 신체 질환 등 다른 데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경우 생활기록부도 확인한다. 어린 시절 발생하는 ADHD를 진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공부는 잘하지만 산만하다’, ‘명랑하지만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한 줄이 단서가 될 수 있다.

약물치료는 꼭 필요한가? 중독성·부작용은 없나?

노력을 통해 스스로 증상을 완화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뇌에서 벌어지는 일을 의지로 통제하는 건 쉽지 않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하고 싶다. ADHD 치료제로 쓰이는 메틸페니데이트, 아토목세틴 계열의 약은 주의·집중력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에 작용해 각성 상태로 만든다. 식욕부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지만 청소년의 키 성장에는 영향이 없다. 아까 말했듯 키는 100% 유전이다. 지나치게 많은 용량을 한 번에 먹지 않는 이상 중독 우려도 없다. 처방 용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척 까다롭게 관리한다.

성인 ADHD는 우울증을 동반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치료의 우선순위는?

성인 ADHD 환자의 84%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울, 강박, 공황장애, 중독, 수면장애, 식이장애 등이다. ADHD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이 같은 공존 질환까지 얻게 되는 거다. 겹으로 드러나는 이 증상을 치료하는 게 먼저다.

최근 산만함, 충동성 등 ADHD 환자의 특성이 창의력, 열정과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학계의 노력도 눈에 띈다.

발명가 에디슨, 애니메이션 제작자 월트 디즈니, 잉그바르 캄프라드 IKEA 회장도 ADHD를 앓았다. 이들은 엉뚱함, 몽상, 즉흥성으로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일궈냈다. 모두 ADHD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ADHD 환자는 에너지가 많다. 문제는 그 에너지를 사회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쓰려고 하니 번아웃이 온다. 어떤 질환이 있을 때 그 증상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거기서 장점을 찾고 이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아동 환자의 보호자에게는 학급반장을 시키라고 조언한다. 알아서 학교도 일찍 가고 시키지 않아도 청소를 한다.

주변 사람들과 사회도 함께 도와야 할 것 같다.

한 사람이 가진 99%의 장점을 보지 않고 ADHD 환자라는 1%의 특성만 보는 게 문제다. 특히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 예를 들어 당뇨병의 경우는 ‘아, 저 사람은 당뇨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ADHD는 ‘환자=ADHD 자체’라고 생각한다. 또 시력이 안 좋으면 안경을 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ADHD가 있다고 하면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등 거리를 둔다. 사람보다 질환이 우위에 있는 거다. 중요한 건 교육이다. 교육은 질병에 안 걸리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질병을 가지고도 잘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다. ADHD는 분명 나을 수 있는 질환이다.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고 깜박하는 ADHD 환자를 질책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ADHD의 특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 나아질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이 ADHD 치료의 지름길을 만들어준다. [K]

조윤 기자

정부, 마음건강 서비스 강화 심리상담 ‘전 국민’ 확대

정부가 ‘전 국민 마음건강 강화’에 나선다. ‘정신질환 예방-조기 발견-치료-복귀’ 전 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대폭 늘린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의 일환이다.

먼저 정신건강 관리의 패러다임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누구나 필요한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 프로그램을 2024년부터 도입한다. 우울 중간위험군, 자살유가족 등 정신건강 중위험군 등 8만 명을 우선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연간 8회 이상 제공(바우처 지급)한다. 2026년 이후에는 서비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살 예방 전화상담도 활성화한다. 2024년까지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상담사는 100명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전화 응대율을 현재 60%에서 7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치료·재활 측면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긴급 외상치료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입원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 데 주력한다. 현재 전국 10곳에 마련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024년까지 12곳으로 늘린다. 일반 응급의료센터에도 정신응급환자를 위한 전용 병상을 2병상 이상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을 확대 개편한다. 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지역사회의 현장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10월 21일 '블루로드 트레킹 페스티벌' 참가자가 블루로드 여권(스탬프북)을 손에 들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지역 활력, 청년마을에서 답을 찾다

트레킹 성지로 떠오른
영덕 두벽이마을을 가다

10월 21일 오전 10시, 경북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해수욕장에 수백 명의 사람이 모였다. 행정안전부와 영덕군이 공동 주최한 '2023 블루로드 트레킹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블루로드는 국내 최초의 내륙 해안 트레킹 코스로 2009년 영덕군의 최남단 남정면 부경리에서 최북단 병곡면 병곡리까지 총 64.6km 4개 구간으로 조성됐다. 푸른 동해의 풍광과 해수욕장, 풍력단지, 대게원조마을, 축산항, 과시리마을 등 풍부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해안길이다. 이날 500여 명의 트레킹 참가자는 블루로드 C코스 일부를 포함한 16km의 순환 코스를 걸었다.

참가자들 중엔 청년들이 단연 눈에 띄었다. 푸른 바다빛 단체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은 스타트 라인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고 행사 부스를 오가며 행사를 즐겼다. 대전에서 온 한해인(34) 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영덕에서 트레킹 행사가 열리는 걸 보고 찾아왔다"며 "바다를 보며 걸을 수 있는 블루로드를 트레킹할 수 있어 설렌다"고 했다. 회사 동료들과 트레킹 페스티벌에 참가한 김자현(27) 씨는 "트레킹 하러 영덕에 온 김에 대게도 먹고 바다도 보고 1박 2일 동안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메이드인피플의 설동원(31) 대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영덕이란 지역에 관심을 갖는 청년이 많아지길 기대한다"며 "트



10월 21일 경북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해수욕장에서 열린 '블루로드 트레킹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스타트 라인 앞에서 블루로드 여권을 들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500여명의 참가자들은 블루로드 C코스 일부를 포함한 16km의 순환 코스를 걸었다. 사진 C영상미디어

레킹을 통해 영덕의 매력을 발견하고 이곳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

영덕 '두벽이마을'은 2021년 행안부가 주관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설 대표는 그때부터 두벽이마을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탐색, 일거리 실험, 지역사회 관계 맺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인구 감소 지역에 청년마을을 조성해 청년 유출이 아닌 청년 유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018년 전남 목포시 '괜찮아마을'을 시작으로 현재 총 39개 지역에 조성돼 운영 중이다.

두벽이마을은 영덕의 블루로드 트레킹 코스와 연계해 걷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거점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의

'덕스'라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8주간 머물며 정착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게 해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년간 정착한 사람은 14명에 이른다. 이런 공로로 설 대표는 최근 청년마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인 '2023 청년마을 페스티벌'에서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트레킹으로 특화, 재미 찾아온다

설 대표 역시 두벽이마을을 이끌면서 영덕에 정착했다. 설 대표는 부산이 고향이고 대구에서 대학을 다녔다. 전자공학을 전공했지만 여행과 기획을 좋아하던 그는 죽이 잘 맞는 대학 후배 장명석(30) 대표와 의기투합해 로컬 청년 벤처 회사인 '메이드인피플'을 차렸다. 창업 초기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을 데리고 전국 곳곳을 누비며 농촌이나 고택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설 대표는 우연히 경북 의성군으로부터 '청년들을 위한 마을을 기획해줄 수



경북 영덕에서 트레킹에 특화된 청년마을 '뚜벅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메이드인피플 설립원 대표. 사진 C영상미디어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추진방향

- 청년이 중심이 돼 인구유출 지역에 활력을 제고
- 청년들에게 사업 추진의 자율권과 주도권을 최대한 보장
-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유도

사업목적

현지 청년과 외지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

사업내용

청년의 지역 탐색·조사, 일거리 실현, 청년공간 확보, 지역 내·외부와 관계 맺기 활동, 홍보 등 지역변화 프로그램 추진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처럼 의성에서 살아보는 '청춘구 행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해 도시청년들의 유입과 정착을 도왔다. 이 프로젝트가 성과를 내자 이번에는 영덕군이 설 대표에게 손을 내밀었다.

영덕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0년 전인 2013년 말 4만 142명이던 인구는 해마다 500명씩 줄어 올해 6월에는 3만 4351명을 기록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영덕군은 40%를 넘어서 일찌감치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청년들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설 대표는 "의성에서 살아본 도시청년 30명 중 15명이 의성에 정착했다"며 "이런 성과를 내려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되 청년들이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영덕의 블루로드를 보며 설 대표는 자신이 걸었던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올렸다. 영덕의 트레킹 코스를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은 걷기 여행 성지로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뚜벅이마을에 온 청년들이 블루로드를 걸으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지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다.

전국 39곳 청년마을 지역 활성화 견인

뚜벅이마을의 대표 프로그램은 '뚜벅이마을 살아가기'와 '3박 4일 살아가기'다. '뚜벅이마을 살아가기'는 영해면 한가운데 있는 게스트하우스 덕스에 머물며 6주간 영덕군의 해안가를 따라 이어진 64.6km의 블루로드를 걷고 창업 경험에 필요한 전통주와 커피, 수제청 만들기과 영덕의 자연을 즐기는 서핑, 바닷가 요가 등의 수업을 받는다. 또 지역 봉사료 복숭아밭과 멜론밭 농가를 찾아 일손을 돕고 주민교류 프로그램으로 인근 복지센터에도 방문한다. '3박 4일 살아가기'는 해안선을 따라 총 4개 코스로 돼 있는 블루로드를 걷는 프로그램이다. 말 그대로 영덕군이라는 지역을 경험해보는 것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1년에 한 번씩 수십 명 규모로 참가자를 모집하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설 대표는 "청년들은 재미가 없으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트레킹 외에도 서핑이나 캠핑 등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영덕이 청년들의 또 다른 고향이

청년마을 조성현황

▲인천

인천 강화군 강화유니버스



▲세종

세종시 농쟁이월드

▲충북

괴산군 뽕하농
공주시 자유도
보은군 라이더타운 회인호
진천군 룰빌리지 진천

▲충남

서천군 삶기술학교
청양군 로컬몬스터
아산시 DOGO온천
태안군 오락발전소
홍성군 집단지성
예산군 케미스테이

▲전북

완주군 다음타운
군산시 술익는마을
익산시 지구장이마을

▲전남

목포시 관촬아마을
신안군 주섬주섬마을
강진군 병영창작상단
고흥군 신촌꿈이룸마을
영암군 허밍스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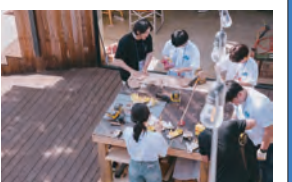
▲강원

강릉시 강릉살자
태백시 광광스토리지
속초시 라이프밸리
영월군 발명
홍천군 와썹타운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상주시 이인삼각
영덕군 뚜벅이마을
경주시 가자미마을
의성군 나만의성
예천군 생텀마을
영천시 취하리
고령군 뮤즈타운

▲경남



거제시 아웃도어 아일랜드
하동군 오히려 하동
함양군 고마워, 할매
의령군 홍의별곡

▲울산

울산 울주군 365발효마을

▲부산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위) 두벽이마을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덕스'와 소품샵. 청년들은 이곳에 머물며 블루로드 트레킹과 지역을 경험한다.
(오른쪽) 트레킹에 특화된 '두벽이마을'의 표지판과 캐릭터. 사진 C영상미디어

될 수 있게 지역주민들과 이웃이 되고 먼저 정착한 청년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2021년 행안부의 청년마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후 두벽이마을에 다녀간 이들은 1000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14명이 영덕에 정착했다. 이들을 위한 취·창업, 주거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두벽이마을을 통해 영덕을 찾는 청년이 늘면서 조용하던 골목에 활기가 넘치고 있다.

설 대표는 이런 활기가 지속되기 위해선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몇 명이 다녀가고 몇 명이 정착했느냐로 당장 성과를 따지기보다 장기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벽이마을을 비롯해 전국 39곳의 청년마을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성 넘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 유입과 정착을 돕고 있다.

충남 아산시의 청년마을 ‘DOGO온천’은 도고를 떠나야 했던 현지 청년들을 지역으로 다시 불러들여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청년기업 공동체를 이뤘다. ‘도고온천장 벼룩시장’을 만들고 ‘로컬몬스터’라는 상품을 제작하는 등 새로운 지역 사업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다.

청주(淸酒)의 고향 전북 군산시에서는 ‘술익는마을’이 청년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청년들은 군산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법을 개발하고 ‘술빛는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주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경남 함양군 ‘고마워, 할매’는 할머니와 청년, 두 세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마을을 꿈꾸며 요리법과 더불어 인생수업도 전수받아 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다.

10월 14일과 1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는 두벽이마을을 비롯한 청년마을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3 청년마을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로컬낭만주의보’라는 주



제로 올해 6년째를 맞이하는 청년마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청년마을이라는 브랜드를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국 곳곳에 조성된 35개 청년마을이 부스를 운영했으며 수도권 청년 등 2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틀간 청년마을 대표들이 주제별로 청년마을 운영성과를 발표하고 타 지역 청년들과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별 부스에서는 청년정책 및 청년마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청년마을 굿즈(팬상품) 등을 전시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미래를 꿈꿀수 있게”

이날 두벽이마을을 비롯해 우수 청년마을과 기관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은 더웨이브컴퍼니는 2021년부터 ‘강릉살자’ 프로그램을 통해 타지 청년들에게 강릉 지역살이 경험과 네트워킹을 제공하고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표를 찾아가도록 돕고 있다. 2023년에는 ‘강릉살자 시즌3 로컬벤처편’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청년들의 강릉 이주와 정착을 돕고 있다. 창업교육·현장실습이 포함된 4주 프로젝트는 강의, 워크숍, 오피스아워, 데모데이 과정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의 삶을 모색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 들은 문화, 자연, 먹거리 등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탐색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를 경험한 후 지역에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한 경우도 있다.

동물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여 섬마을 삶을 모색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 ‘주섬주섬마을’과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경남 하동군 ‘오히려 하동’도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달빛탐사대’는 문경 정착에 관심있는 청년들의 커뮤니티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숙소와 공유 오피스를 지원하고 있고 ‘오히려 하동’도 청년들의 웃음소리로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미래를 꿈꾸며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지방시대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청년마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정미 기자

영덕 두벽이마을에 정착한 오성규 씨



“8주 살기’ 참가해 블루로드 걷다 인생의 길 찾았다”

대구 출신 오성규(38) 씨는 1년 전 경북 영덕군 두벽이마을의 ‘8주 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영덕에 정착했다. 8주 살기는 영덕군이 해안가를 따라 조성한 블루로드를 걸으며 곳곳을 둘러본 뒤 봉사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과 어울리며 영덕을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두벽이마을을 어떻게 알게 됐나?

직장 생활을 하며 번아웃(탈진 증후군)이 온 상태였다. 원래는 국내 한 대기업에서 해저 지형을 관측하는 일을 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었는데 영덕 출신 동료가 ‘두벽이마을’을 소개해줬다. 트레킹을 좋아하고 블루로드도 걸어보고 싶어 두벽이마을에 왔다. 무엇보다 ‘시속 4km로 걸어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두벽이마을의 모토가 좋았다. 뛰지 않고 걸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나. 그렇게 8주 살기에 나섰다.

영덕에 정착하기로 한 이유는?

두벽이마을을 통해 영덕에 와보니 자연도 좋고 사람들도 좋았다. 도시에서는 힘들고 지치고 외로웠다. 8주를 지내고 나서 이곳에서 느긋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정착을 위해 취업이나 창업을 계획했나?

영덕에 살 작정은 했지만 무엇을 하면서 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살구도 따고 추수도 하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도 했다. 취·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교육도 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 지금 특산물을 활용한 디지털 전문점 창업을 준비 중이다. 멜론이나 복숭아 등 농가에서 상품가치가 없다고 버려지는 특산물을 활용해 빵을 만들 생각이다. 영덕을 찾는 트레커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고 그곳에서 빵을 팔 계획이다.

두벽이마을을 통해 인생이 달라졌다.

영덕에 와서 하고 싶은 걸 찾고 싶고 해갈 수 있는 공간도 생겼다. 돈은 못 벌어도 괜찮다.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내가 진짜 꿈꾸는 삶에 다가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도시에서 살다 영덕에 와서 불편한 점은 없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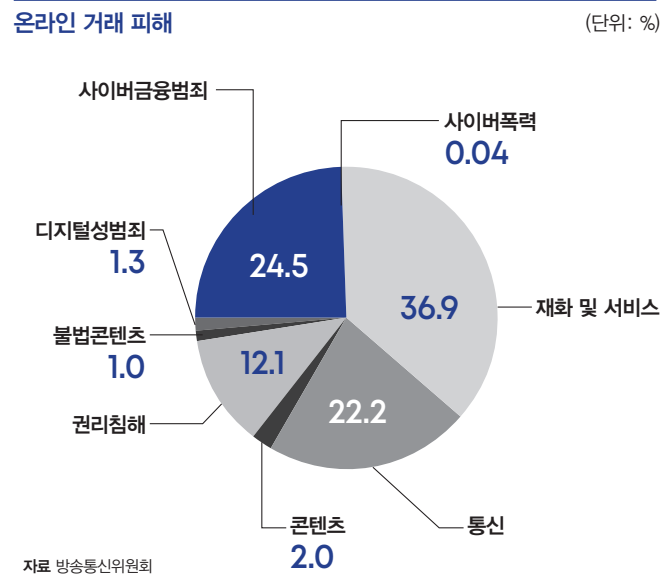
불편함 대신 얻는 게 많다. 도시와 달리 이곳에선 별이 정말 잘 보인다. 자기 전에 나가서 별을 보는 게 하루의 낙이 됐다. 이곳에선 야식 배달은 꿈도 못 꾸다. 덕분에 건강해졌다.

청년마을을 통해 모두가 정착을 하는 건 아니다.

청년들 대부분이 일상에 지쳐서 방학처럼 쉬고 싶어 영덕에 온다. 그런 청년들은 지역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난다. 청년마을에 진심인 친구들이 와서 정착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온라인 거래 피해 해결해줍니다!

‘온라인피해365센터’ 개소 1주년… 피해 상담 2070건 사례 분석해보니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한정판 운동화를 구입한 A씨. 새상품급이라는 판매자의 설명과 달리 흠집이 많은 상품이 왔다. A씨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이 불가하다고 했다.

B씨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해외 유명 가수의 내한 콘서트 티켓을 구매했다. 판매자는 선입금을 받은 후 핑계를 대며 발송을 미루더니 아예 잠적해버렸다.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처럼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고거래 사기를 비롯해 온라인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온라인피해365센터(이하 365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365센터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국민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지원을 하고 있다.

365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중고거

래 사기 등 재화 및 서비스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2022년 5월 31일 365센터를 개소한 후 총 2070건의 피해 상담을 진행했다고 10월 20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이 763건(3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버금융범죄 등 508건(24.5%) ▲통신 459건(22.2%) ▲권리침해 250건(12.1%) ▲콘텐츠 42건(2%) ▲디지털성범죄 27건(1.3%) ▲불법콘텐츠 20건(1%) ▲사이버폭력 1건(0.04%) 순이었다.

주요 피해 사례는 ▲소비자 간 거래(C2C) 중고거래 플랫폼 품상 거래사기·품질불량 ▲정보통신망상 사이버금융범죄 ▲휴대폰 단말기 부당가입·명의도용 ▲게임·대출·상거래 분야 누리소통망(SNS)·앱·휴대폰상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상 허위·악성리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977건(47.2%)으로 남성보다 다소 많았다. 여성과 남성 모두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가장 많았다. 여성은 의류 등 온라인 쇼핑물 구매 상품의 품질 불만·환불거부 사례, 남성은 중고거래 사이트 전자제품 등 물품 미배송·거래사기 사례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58%로 가장 많았으며 40~50대(32.8%), 60대 이상(4.7%) 순으로 나타났다. 20~30대는 전자제품 관련 거래, 40~50대는 의류 등, 60대 이상은 통신요금 불만(중요사항 미고지) 등의 피해 사례가 많았다.

방통위는 주요 상담 사례와 피해예방 수칙, 대처 방안을 담은 ‘2022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올해 초 발간한 바 있다. 이는 365센터 및 방통위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방통위가 365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한 슬로건 공모전에는 총 1022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대상작으로 ‘온라인피해 없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선정됐다. 대상작은 365센터 공식 슬로건이자 정책홍보 콘텐츠로 활용된다. **K** 강정미 기자

‘천사섬’으로 간 대한민국 문화의 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월 21일 전남 신안군 1004뮤지엄파크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문화의 달’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역문화대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피아노 100+4대의 선율이 바람결을 타고 1004섬에 울려 퍼졌다. 올해 ‘2023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는 처음으로 물이 아닌 섬에서 열렸다. 주제는 ‘섬, 대한민국 문화 다양성의 보고-1004섬 예술로 날다’. 전남 신안군 일대엔 1000개 이상의 섬이 있다. 통칭해 ‘천사(1004)섬’이라 부른다.

10월 20~22일 신안군 자은도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미국의 설치예술작가 제임스 터렐이 강연을 했다. 뮤지엄파크에선 ‘나도 100+4 피아니스트’ 공연, 김밥페스타, 보라해댄스페스티벌 등이 열렸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월 21일 뮤지엄파크에서 열린 개막식과 ‘산다이 공연’에 참석했다. 산다이 공연은 이번 행사의 백미였다.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임동창이 총감독을 맡았다. 산다이는 섬사람들이 써왔던 말로 ‘축제’, ‘여흥’이란 뜻이다.

유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섬에는 저마다의 독특한 문화와 삶이 살아 숨쉰다”며 “지역소멸 상황에서 ‘산다이’와 같은 고유의 축제문화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지역을 특화해 문화를 풍성하게 일궈나가는 신안군의 사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무대에 도열한 104대의 피아노는 장관이었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피아노로 ‘아리랑’ 연주를 짧게 선보이자 화답으

로 100+4대 피아노의 ‘아리랑’ 선율이 무대에 깔렸다. 압해동초등학교 학생들이 등장해 피아노 반주에 맞춰 ‘신안아리랑’을 부르며 신안 산다이를 선보였다.

2부는 줄타기 공연이었다. 줄타기 인간문화재 김대균의 제자들이 만담과 함께 줄을 탔다. 전일부터 공연이 취소될 정도로 강풍이 부는 바람에 줄타기 공연은 더 아찔했다. 이날 5000여 관객은 열띤 박수로 바람에 맞서는 공연팀을 응원했다.

줄타기에 이어 펼쳐진 무대는 그야말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국악 올스타’들의 향연이었다. 신영희, 김수연, 박양덕, 유영애, 채수정, 왕기철, 왕기석, 이영태 등 판소리 명인들이 총출동했다. 임동창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이들이 선보인 판소리 갈라(Gala) 공연은 감동 그 자체였다. 이생강(대금), 김영길(아쟁), 김무길(거문고), 최경만(피리), 원장현(대금), 류경화(철현금), 최진(가야금), 이용구(대금), 김동원·김주홍(타악), 진유림·채향순(법고) 등 명인들이 한 무대에서 연주와 춤을 선보였다.

‘2023 문화의 달 행사’ 강형기 추진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문화의 다양성을 확산하기 위한, 신안다움을 선언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바다 건너 찾아주신 국민들 덕에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K**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육각형 벌집 모양의 메인 건물 '허니홀'과 벌나비 정원에 있는 벌 호텔. 숲이오래는 수분 매개자인 '벌'을 주요 테마로 꾸몄다. 사진 C영상미디어



숲이오래 키즈 아카데미에 참여한 아이들 모습. 단체의 경우 6회 차 수업으로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을 경험하도록 구성해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 국립수목원 숲이오래



국립수목원 '숲이오래' 키즈아카데미 기후 불안 줄이고 환경 감수성 높이고 거대한 숲 교실에서 환경 배워요!

“전라도에서 망고가 난다는 뉴스에 아이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겨울이 없어지고 여름만 있는 나라가 되는거냐면서요. 또 이번 여름엔 미국에서 폭염으로 자동차가 녹아버린 사진을 인터넷에서 보고 사람들의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니 수시로 ‘지구가 멸망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아이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국립수목원 숲이오래 가족 대상 키즈아카데미에 참여한 학부모 A씨의 말이다. 아이들의 기후 불안감은 비단 A씨 자녀에 국한하지 않았다. 학부모 모임 등에 가면 “동남아에서나 사는 게가 제주도 바다에서 잡힌다는 뉴스를 보더니 아이가 지구 온난화가 시작됐으며 자꾸 겁이 난대”, “미세먼지 걱정을 너무 했나, 아이가 숨쉬기가 더럽대”, “동화책에서 전염병 창궐이란 말을 보더니 코로나19 같은 거냐고 묻더라고” 등 환경에 대한 아이들의 불안감을 토로하는 부모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환경 관련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알아보던 중 국립수목원 숲이오래를 알게 됐다. 이곳에서 소중하게 보존되고 있는 자연을 직접 체험한 후 아이의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는 것 같아 벌써 두 번째 방문했다고 했다.

기후에 대한 요즘 세대들의 불안이 심상찮다.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들이 마지막 세대일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갖고 있다. 이로 인한 식욕감퇴, 분노, 죄책감, 우울감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리켜 ‘환경불안증(Eco-anxiety)’, ‘기후우울증(Climate Depression)’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2018년 폭염, 2019년 태풍, 2020년 역대급 폭우, 코로나19 등 강렬하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연이어 겪으면서 환경문제가 자신들의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됐기 때문이다.

2021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피부로 느낀다’고 응답한 성인은 19%에 불과한 반면 청소년은 42%에 달했다. 지난 3월 스위스 인터

라켄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승인한 제6차 종합보고서에는 “기후변화는 질병·조기사망뿐 아니라 불안·스트레스를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명시했다.

환경 인식 변화시키는 숲체험

“요즘 아이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큼니다. 몇 년 전 아시아 최초로 ‘기후변화’ 소송에 나선 한국 청소년들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시위도 하고 말이지요. 왜냐하면 정말 자신들의 세대가 진짜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국립수목원은 숲이오래를 통해 아이들의 이런 기후 불안감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감수성을 높이고자 숲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수목원 전시교육연구과 정성희 박사는 흔히 죄책감이나 공포심 등 부정적 감정에서 시작하는 환경에 대한 경

각심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생태계에 대한 긍정적 이해가 장기적 측면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환경 의식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숲은 최적의 거대한 교실이라고 했다. 어른들의 눈에는 단순히 밖에서 노는 것처럼 보여도 아이들은 그 속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자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다.

2021년 5월에 개원한 숲이오래는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해 만든 키즈아카데미다. 숲과 자연을 배우고 체험하는 새로운 교육공간이다. 건축면적 275㎡, 1층 건물로 교육실, 놀이체험공간, 환경교육실, 환경전시관, 별집호텔, 휴게정원, 키친가든, 옥상정원, 폴리네이터가든, 레인가든 등으로 구성했다. 건물 외부는 목재로 꾸며져 있고 자연을 섬긴다는 뜻을 담은 생물사랑 디자인이 적용됐다. 국민 공모를 통해 탄생한 ‘숲이오래’라는 명칭은 다정하게 어린이에게 다가오라는 뜻을 담고 있다.

국립수목원 정문 입구 근처에 위치한 숲이오래는 낮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건물과 정원 등의 주요 시설물을 수분 매개자인 ‘벌’을 주요 테마로 꾸민 점이 인상적이었다. 실내교육이 진행되는 ‘허니홈’ 메인 건물은 벌집 모양으로 지어졌고 ‘벌나비정원’에는 실제 벌들이 알을 낳고 살고 있는 벌호텔이 있다. 또 숲이오래 야외공간 전체는 벌이 먹고 살 수 있게 사시사철 꽃이 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막연한 기후 공포, 자연 체험 통해 해소

수분 매개자란 넓게는 꽃의 꽃가루를 수컷 생식기관(수술)으로부터 암컷 생식기관인 암술머리로 옮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모두 일컫는다. 보다 좁은 의미로는 꽃가루받이를 매개함으로써 수정에 이르게 해 씨앗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동물로 꿀벌, 나비, 나방, 새 등이 대표적이다. 자연 생태계에 있는 대부분 식물이 수분 매개자의 도움으로 수분을 이루고 씨앗을 맺는다. 만일 수분 매개자가 없다면 인간은 작물의 씨앗이나 열매를 얻을 수 없다. 정성희 박사는 숲이오래의 모든 시설과 교육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성의 요소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개 환경 교육이나 숲 체험 등은 ‘기후위기에 따라 수분 매개자들이 감소하고 있다’, ‘벌들이 사라지고 있다’ 같은 사실을 통해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원의 재활용을 재미있게 알려주는 빗물저금통. 사진 C영상미디어

숲이오래는 실제 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벌의 중요성을 알고 고마움을 느끼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에 대한 막연한 공포나 나를 해칠 것 같은 두려움을 해소하고 다른 식물이나 곤충과도 편안하게 관계를 맺는 도움을 줍니다.”

정 박사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잘 꾸며진 조경으로만 보이던 숲이오래의 야외 공간이 정교한 자연 교실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레인가든은 지붕의 경사면을 통해 빗물을 받아들여서 재활용하는 개념을 적용했다. 아이들에게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교육적 측면과 함께 벌집형 물 흠통, 빗물 저금통 등 재미 요소도 집어넣었다. 키친가든은 식물을 직접 가꾸며 여러 감각을 자극하고 깨우는 체험공간으로 아이들에게 풍부한 감성을 심어주는 오감체험 텃밭이다. 이밖에도 고사리손정원, 오리연못, 지렁이놀이터, 숲속놀이터 등 구석구석 아이들이 나무와 풀, 꽃, 새, 곤충 등 다양한 산림생물을 친구 삼아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

작은 개울을 나무다리로 건너 들어가야 하는 숲속놀이터는 숲이오래의 백미 같은 공간이다. 큰 나무들로 둘러싸여 마치 깊은 숲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숲속놀이터는 거대한 고사목을 옆에 두고 그루터기 나무를 의자 삼아 아이들이 온전히 숲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숲이오래 숲속놀이터 전경.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다. 사진 C영상미디어

이곳을 방문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으로 개울의 나무다리를 건널 때부터 신나 한다고 한다.

정 박사는 산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루라도 빨리 숲과 자연을 접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내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연결된 채 살아야 한다는 섭리를 유아 때부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그냥 나 혼자 태어난 것 같고, 지구가 왜 지키고 가꿔야 할 소중한 환경인지 모르게 됩니다. 이는 환경 의식과 즉결됩니다.”

산림교육은 사회성 발달, 학습능력 향상, 자아개념 형성, 심리안정, 면역력 향상 등 많은 교육 효과가 있다. 특히 환경감수성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산림청이 초등학교 104명을 대상으로 9개 코스의 산림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전후 환경태도를 비교한 결과 환경일반, 환경오염, 에너지, 동물보호 등 모든 주제에 있어 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서 숲생태 체험학습에 대한 효과를 연구한 결과 일반 학생들에 비해 환경에 대한 관심과 감수성, 실천 의지가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체험학습이 이론학습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도 확인했다. 숲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다. 아이들과 함께 지금 숲으로 가자. **K**

강은진 객원기자

숲 교육, 빠를수록 좋다

국립수목원 ‘숲이오래’ 키즈아카데미는 크게 개인과 단체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먼저 단체는 유·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프로그램(5~9세), 초등 고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생물학교(10~19세)로 구성된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4월부터 시작해 10월까지 모두 6회로 진행되며 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단조롭고 추상적인 꽃 그림을 그리던 아이들이 숲이오래 수업이 진행되면서 점점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 개인의 경우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광릉숲보물찾기’와 초·중·고학생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광릉숲 탐탐탐’이 주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숲이오래의 모든 수업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교육 표준지침과 교육부의 누리과정을 참고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 강사 대부분은 10년 이상의 산림교육 경력을 가진 은퇴한 전직 교사다. 단체 예약은 산림청 국립수목원 누리집(kna.forest.go.kr)에서 가능하며 개인은 선착순 현장 접수를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죽음’ 돌보는 장례지도사 강봉희

“고독사 매년 늘어
자비 들여 마지막 길 배웅
19년 봉사 900여 명 수습”

아무도 돌보지 않는 죽음, 고독사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2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한 사망자는 3378명이었다. 하루 평균 9.3명이 홀로 사망한다. 더 큰 문제는 이 죽음의 숫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이다. 2017년 2412명에서 불과 4년 만에 40%가 늘어났다.

고독사한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외롭다. 이들의 마지막 길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 (사)장례지도사협회봉사단 강봉희 대표는 지난 19년 동안 900여 명의 독거노인과 무연고자의 고독한 시신을 수습했다.

강 대표는 27년 전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1996년의 어느 날 근무 중 소변을 보는데 피가 쏟아졌다. 그날로 병원에 가보니 방광암이 3기에서 4기로 넘어가고 있었다. 당시 남은 날이 3개월이라고 했다. 그의 나이 40대였다. 당황할 겨를도 없이 수술과 치료가 이어졌다. 치료가 4년 넘게 이어지던 그때 3층 입원실 창가에서 밖을 보니 장례식장이 보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시신이 오갔다. ‘만약 살아서 저 장례식장 앞을 걸어 나간다면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다짐했다.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남과 다투지 말고 살자고

다짐했죠. 장례식장에 시신이 운구되는 걸 보면서 죽은 사람의 몸에는 누구도 손을 대고 싶어 하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이 꺼리는 일을 한다면 내 인생도 조금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치료는 잘됐다. 잠시 스쳐간 생각을 실행으로 옮긴 건 신문에서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광고를 본 뒤였다. 대구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등록해 장례지도사 과정 교육을 받았다. 평생 건축일을 하던 강 대표는 장례지도사로 인생 2막을 시작했다. 2004년에는 장례지도사협회봉사단을 만들었다. 180cm가 넘는 키에도 56kg밖에 안나가던 몸무게가 장례지도사를 시작한 뒤 늘어났다. “얼굴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다. 그의 일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주는 일이지만 시신을 마주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조금만 더 일찍, 조금만 더 빨리 발견했다면 혹시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장례지도사를 시작한 후로 900번이 넘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처음 시신을 본 게 장례지도사 과정

코로나19 당시 대구에서 가장 먼저
사망자 시신을 수습했던 건 강봉희
대표와 봉사단이였다. 사진 조선DB

“저희는 죽음 뒤에 그들을 만납니다. 죽음 전에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해요. 자율방범대원이 있는 마을이라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문이라도 두드려줘야 합니다.”



올해 만 70세인 강봉희 대표는 “힘이 닿는한 장례봉사를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동기가 자신이 다니는 성당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수습할 사람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죽음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땐 어떻게 했나요?

하다 보면 순응이 됩니다. 봉사를 시작하고 몇 년은 힘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저희가 만나는 시신은 편안하게 사시다 돌아가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생이 느껴지니 더 힘들더군요. 장례봉사단은 제가 만들었지만 이후 동료와 후배들이 생기니 책임감이 생겼고 그렇게 몇 년을 계속하다 보니 두려움에도 익숙해졌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왔을 때 그 시신을 수습한 게 봉사단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첫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의료진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사망선고만 내리고 그 후 대책이 없었습니다. 저와 동료들이 방호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수의 대신 비닐로 겹겹이 싸서 옮겼습니다. 보통은 삼일장을 치르는데 코로나19 사망자는 매뉴얼에 따라 3시간 만에 화장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죽음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셈인데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 그 일을 내가 하자고 마음먹었고 그게 다입니다. 어쩌다 보니 아무도 돌보지 않는 죽음을 돌보게 됐지만 깊은 뜻이나 거창한 목표가 있어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도 몰랐어요. 무턱대고 시작했고 무턱대고 걸어왔습니다. 많은 분이 어떻게 그 힘든 일을 이처럼 오래 할 수 있었는지 묻지만 다른 이유는 없어요. 내 또래의 다른 분들이 이웃들과 맛있는 것 먹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행복을 느끼듯 나도 누군가의 죽음 곁을 지키는 일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고 있겠지요.

자주 가는 노점상 주인의 남편 장례도 치러줬다고요?

2004년으로 기억해요. 대구 중앙파출소 앞에 제가 자주 가는 떡볶이랑 어묵을 파는 노점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노점 주인의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살아야 하는 형편이라 경황이 없어 보였어요. 손을 보태줄 친척도 없어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제가 도맡아 시신의 염을 하고 장례 절차를 도와드렸습니다.

비용은 일절 받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비용을 받으면 봉사가 아니지요. 2004년 11월에 장례봉사

단을 꾸려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아무런 금전적 보상 없이 장례를 맡아준다는 걸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저를 포함해 이사 6명과 감사 2명이 장례의 전 과정을 진행하고 필요경비는 8명의 운영진이 매월 100만 원씩 내서 충당합니다.

장례 의뢰가 자주 들어오나요?

처음에는 연평균 10건, 20건 남짓의 장례를 맡았는데 점점 많아져서 연 70~80건이 되더니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망자를 제외하고도 100건이 넘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희가 맡는 장례가 늘어난다는 건 우리 사회의 고독사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뜻이겠지요.

고독사가 늘어나는 걸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군요.

고독사 시신이 시간이 흘러 부패가 되면 일반인은 보기 힘들습니다. 그런 시신을 만나면 마음이 더 안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들여다보고 살펴줘야 합니다. 그래야 돌아가셔도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고인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사진을 남기는 일은 없다고요.

저희가 하는 장례는 유족에게 둘러싸이거나 슬픔 속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무연고이거나 가정이 깨진 상태였죠. 그래서 고인의 가족 관계나 신상은 묻지 않아요. 유족이 있어도 어려운 환경이 대부분이니까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절 묻지 않게 합니다.

고독한 죽음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죽음 뒤에 그들을 만납니다. 죽음 전에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해요. 자율방범대원이 있는 마을이라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문이라도 두드려줘야 합니다. “할배, 저녁 드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한 마디만 물어도 충분합니다. 그랬는데 반응이 없으면 문을 열어봐야죠.

살아 있을 때 돌봐야 된다는 거네요.

노인들만 남은 동네도 많아요. 시골로 갈수록 더 그렇고요. 집마다 깃발을 걸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깃발을 올리게 하면 어떨까요? 어떤 집에 깃발이 안올라오나만 체크해도 안부를 알 수 있잖아요. 죽음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 여러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막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요.

‘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길 바랍니다까?

“잘살다 갑니다. 고맙습니다”하면서 웃으며 가고 싶어요. 제 사무실에 이미 영정사진을 걸어 뒀어요. 가장 즐거울 때 활짝 웃고 찍은 사진이에요. 웃도 제가 평소에 입던 가장 좋

아하는 옷을 입고 가고 싶어요. 시한부 이후로는 덤으로 주어진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일 하면서 좋은 세상 살다 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뷰가 있던 날 새벽에도 전화가 왔다고 했다. 대구의 희망원이라는 시설에서 입소자가 숨을 거뒀는데 유족이 없었다. 바로 일어나 옷을 입고 희망원에 가 시신을 수습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면 더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 일 주일에 2~3건, 한 달에 7~8건이던 장례는 봄이 되거나 가을이 오면 하루에 3건 정도로 늘어난다. 정성껏 염을 해 고인을 화장장에 옮기면서도 그는 생각한다. ‘살아 있을 때 돌봐야 하는데’, ‘죽으면 소용없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 일하는 건 제가 할 테니 이제는 산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늦어요. 죽은 후엔 늦습니다.”

유슬기 기자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2027년까지 고독사 20% 줄인다

정부가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를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인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먼저 고독사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험군의 사회적 연결을 지원하는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취업 등 위기 요인 해소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집중 연계·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한편 중앙 및 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해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중앙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내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지역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한다. 또 지자체의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통합사례관리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고독사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한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지자체 사례관리 업무지원을 위한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품격 있는 생활공간은 이런 곳!

2023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광주광역시 ‘동구인문학당’ 대상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의 건축양식을 잘 보여주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동구인문학당’이 ‘2023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상(대통령상)에 선정됐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한국 건축가협회와 함께 품격 있는 생활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006년도부터 수여해온 상이다.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간 등으로부터 작품 30개를 추천받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6개 작품을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동구인문학당은 1954년 건립된 근대가옥이다. 서양식 본채와 한옥식 안채, 일본식 건물 내부로 이뤄진 독특한 건축양식의 건물이다. 문체부는 “원래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매입된 곳이었으나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의 보존 요구를 받아들여 시민을 위한 인문·문화 공간으로 거듭나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동구인문학당의 본채는 기존 형태를 살려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본채 맞은편에 인문관을 증축해 예술 창작과 주민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쓰고 있다. 공유 부엌도 갖췄다. 이곳에선 근대가옥의 정취를 느끼며 다양한 인문·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에는 서울 용산구 해방촌오거리 중심에 있는 신흥시장의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한 ‘클라우드(CLOUD)’가 선정됐다. 클라우드는 채광과 환기를 개선한 아케이드로 일광 투사율이 높고 내구성이 탁월한 소재(ETFE)를 사용했다. 시장 주변 환경을 만들어 전통시장을 시장 자체의 공간적·기능적 특성과 다양한 문화·예술·생활이 공존하는 밝고 새로운 곳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좋은 거리·광장에 수여되는 거리마당상(문체부장관상)은 서울 동작구 ‘벙커 대방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선정됐다. 자연친화적 쉼터에 수여되는 누리쉼터상(문체부장관상)에는 전북 부안군 ‘부안예술공방’이,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공간문화를 조성한 장소에 수여되는 두레나눔상(문체부장관상)에는 서울 ‘강남구월 에이징센터’가 뽑혔다. 인천 중구 ‘인천시민애(愛)집’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잘 활용한 장소에 수여되는 우리사랑상(문체부장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10월 25일 ‘2023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진행됐다. 10월 25~29일 열린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기간 문화역서울284에 수상작으로 선정된 공간들의 사진과 영상물이 전시됐다. 

강정미 기자

1		
2	4	5
3		6

- 1 광주 ‘동구인문학당’
 - 2 서울 용산구 ‘클라우드’
 - 3 서울 동작구 ‘벙커 대방 청소년 문화의 집’
 - 4 전북 부안군 ‘부안예술공방’
 - 5 서울 ‘강남구월 에이징센터’
 - 6 인천 중구 ‘인천시민애집’
-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쌍둥이와 놀기

뒷정리 난도



주객전도



무한반복학습



사기꾼의 수화와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

무고한 시민 4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마를 체포한 미국 플로리다주의 탐파 경찰 당국은 대대적인 TV 브리핑을 앞두고 있었다. 브리핑 현장에는 수사 진행 상황을 발표할 경찰서장과 경찰서장의 말을 수화로 전달할 통역사 데린이 통역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연히 브리핑 현장에 있던 데린은 자원봉사를 지원했고 마침 통역사가 준비돼 있지 않던 당국은 그녀를 서장 옆에 서게 했다. 브리핑이 시작되고 검은색 드레스에 단정한 머리를 한 데린은 진지한 표정으로 수화를 이어갔다. 화면을 보던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그 장면을 시청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간 후 큰 논란이 일어났다. 수화가 엉터리라는 제보가 방송국에 빗발쳤기 때문이다. 그녀의 정체는 수화를 전혀 모르는 전과 5범의 사기꾼이었다. 경찰은 정장을 차려입은 그녀의 외모에 속았고 방송 관계자들은 경찰과 함께 등장한 상황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영상을 돌려보면 똑같은 손짓을 반복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워싱턴의 랑팡플라자 지하철역에서는 데린의 속임수와 정반대의 광경이 일어났다. '워싱턴포스트'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Joshua Bell)과 함께 심리 실험을 진행했다. 벨이 지하철역에서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연주를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연주를 듣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었다.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는 350만 달러를 호가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으로 43분 동안 6곡을 연주했다. 그 사이 1000여 명 넘는 사람이 그를 지나쳤지만 단 7명만이 멈춰서서 진지하게 음악을 들었다. 모금된 금액은 32달러에 불과했다. 만약 그가 멋진 옷을 입고 정체를 밝혔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없고 바쁜 사람일지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벨의 연주를 들으며 대가의 선율을 느껴보려 하지 않았을까?

편견이 진실을 왜곡해 상대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할 때가 있다. 데린처럼 상황이 주는 후광효과에 혹해서 크게 피해를 보기도 하고 벨의 경우처럼 겉모습에 가려진 본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 좋은 인연과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상대를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 배경이나 상황을 보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상황이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후광효과를 주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이용하려 애쓰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피와 땀이 담긴 실력을 키우기보다 자신을 돋보이게 할 간판을 따기 위해 온 힘을 쏟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 보면 속 빈 강정처럼 내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함께 일해 보면 당연히 좋은 성과를 내지도 못한다.

상대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배경에 현혹되지 않는 통찰과 냉정함이 있어야 하고 행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런 통찰과 지식이 합쳐져 안목이 된다. 내가 상대를 알아보는 안목을 갖춰 지혜로워질 때 데린을 가까이하고 벨을 멀리하는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태가 상대의 진가를 알아보는 일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조금씩 안목을 키워나갈 때 속지 않고 속이지 않는 현명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것이다. ☑



신가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인드풀링(Mindfulness) 대표이자 '마음 찾집' 유튜브를 운영하며 한부모가정 모임인 '그루밍' 교육센터장이다.

별을 품은 청정자연, 경북 영양군

밤하늘 보호공원 자작나무 숲에 별이 쏟아지면...

경북 봉화군과 영양군, 그리고 청송군을 흔히들 ‘경북의 BYC’라고 부른다. 전북의 무진장(무주·진안·장수)처럼 오지 중에 오지를 부르는 두문자인데, 그중에서도 인구 1만 8000명의 영양군은 육지 속의 섬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 동해안의 양양과 혼동할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고장이지만 사람들의 손이 덜탄 만큼 자연도 잘 보존돼 있어 2017년 국제 슬로시티로 인증을 받았다.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서 바라보는 별들

영양군청에서 북쪽으로 30km를 더 올라가면 수비면의 수하계곡을 만날 수 있다. 영양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해 올진과 가까운 이 계곡은 청정지역에서만 살 수 있다는 반딧불이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수하계곡 일대는 2015년 10월 31일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됐다. 이후 일본 고즈시마, 비세초, 오키나와와 대만의 허환산 등도 이름을 올렸다.

요즘처럼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에 시달리다 보니 맨눈으로 밤하늘의 별을 보며 별자리를 찾아보는 일은 아주 특별한 일로 여겨진다. 국제밤하늘협회(darksky.org)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30%는 은하수를 볼 수 없고 유럽과 북미 인구의 99%는 심각한 빛 공해에 노출돼 있다. 빛 공해가 심각해지면 야생동물의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곤충의 생태계가 무너져 먹이사슬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사람은 불면증, 우울증 등의 발병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서 바라보는 별의 모습.

이 늘어난다. 또 인공조명의 35%는 과도한 밝기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높인다.

결국 밤하늘을 지키는 것이 지구를 지키는 방법이다. 밤하늘 보호구역은 깊은 어둠과 밤하늘을 경험하면서 환경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곳이다.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는 달팽이, 우렁이, 다슬기와 더불어 희귀 곤충들이 서식하는 반딧불이생태공원과 은하수와 유성을 관측할 수 있는 영양반딧불이천문대가 있어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밤의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밤 10시, 천문대 개방시간이 지나면 이곳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든다.

나무의 귀족들이 사는 곳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마을에는 자작나무 군락이 있다. 자작나무 하면 강원 인제군을 떠올리지만 30년 전 영양 검마산 기슭에 심은 5만여 그루의 자작나무 묘목이 자라 명품 숲을 이루고 있다. 자작나무 숲은 낙엽이 떨어질 때쯤 진가를 발휘한다. 해발 800m 이상에서만 자라는 특성 때문에 남쪽지방에서 자라는 경우가 매우 드문 자작나무는 초록의 잎들로 옷을 입었을 땐 다른 나무들 틈에 가려 보이지 않다가 낙엽이 지고나면 새하얀 수피가 특별한 풍경을 선사한다. 겨울나무의 황태자라는 말이 과연

이 아니다.

죽파리마을에 도착하면 자작나무 숲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이 나온다. 주차를 하고 마을을 지나 1km쯤 걸어가면 본격적인 산림도로가 시작된다. 숲까지는 3.5km지만 맑고 시원한 계곡과 개성 넘치는 포토 포인트들이 이어져 있어 지루하지 않다. 계곡은 폭이 상당히 넓다. 아름드리나무들이 벗어던진 낙엽들이 계곡 물위를 뒤덮어 어디가 물이고 어디가 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40분쯤 걸으면 환상적인 자태의 자작나무 숲과 마주하게 된다. 두 개의 코스가 있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자작나무를 실컷 볼 수 있다. 정상 쪽에는 전

박동철 <여행이 즐거워지는 사진찍기>
<대한민국 주말가족여행>
<사진의 구도 구성>
<슬로시티 걷기여행>
<신께서 허락한 나만의 별> <베트남 사진여행>
<가볼까 두근두근 문화유산 여행> 등 40년을 넘긴 작품 활동을 통해 많은 책을 집필했다.



검마산 자작나무 숲길은
낙엽이 질 때쯤 진가를
발휘한다.

망대가 마련돼 있는데 경사가 있어서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경치는 수고를 보상한다. 제대로 된 단풍을 보려면 11월 첫째 주가 최적이다.

주실마을이 배출한 청록파 시인 조지훈

영양군 일월면 주실마을도 꼭 들러야 한다. 1630년경 터를 잡은 한양조씨의 집성촌이자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고향이다. 마을 한가운데에 그의 생가였던 호은종택이 자리 잡고 있다. 조지훈의 부인 김난희 여사가 직접 현판을 쓴 문학관은 단층으로 지어진 ‘ㄱ’자 모양의 기와집으로, 조지훈의 삶과 그 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유물이 전시돼 있다. 특히 어린 시절 자료와 광복 및 청록집 관련 자료들엔 암울했던 현대사의 단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실 조지훈은 그의 형 조세훈에게 시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 조세훈은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치고 시집을 펴낼 정도로 문학적 재능이 풍부했다. 하지만 천재는 단명한다고 했던가. 21세에 갑

자기 세상을 뜨고 마는데 그 이유가 허망하다. 이를 뽑은 날 친구가 찾아와 술 한잔을 마시는 바람에 파상풍에 걸린 것이다. 애절하게 끝난 형의 못다한 시 인생을 조지훈이 아낌없이 불태웠다.

그의 문장을 읽다보면 어떻게 이런 문구를 생각해냈을까 싶은 대목이 많다.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승무’의 시구들은 그의 천재성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지식인과 문인이 일제에 굴해 친일 행위를 했지만 조지훈은 절필을 할망정 결코 친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마을 끝자락엔 수령 100년의 소나무와 250여 년의 느티나무, 느릅나무가 가득한 시인의 숲이 있다. 그 속을 걷다보면 신령스러운 나무들이 가을의 시를 노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조선 3대 민간정원에서 작은 여유를

주실마을 인근 반변천과 동천을 가르는 선바위를 지나면 곧 연당마을에 닿는다. 마을 입구에 최근 120년 된 고택을 고쳐 만든 카페가 새로 문을 열었다. 덕분에 연당마을을 찾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다.

마을에 들어서면 아름답리 은행나무가 담장에 드리운 한 고택이 눈에 들어온다. 조선 광해군 5년(1613)에 석문 정영방이 지은 이곳의 연못 서석지는 전남 담양군의 소쇄원, 완도군 보길도의 세연정(부용원)과 더불어 조선시대 3대 민간 정원으로 불린다. 정원 가운데에는 정자인 경정(敬亭)이 있고 경정 바로 앞에 상서로운 돌이 가득한 연못이라는 뜻의 서석지가 있다.

처음에는 풍수적 이유로 앞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 판 연못이지만 바닥을 파면서 나온 돌들에 영감을 얻어 다양한 뜻을 담아 이름들을 붙였다고 한다. 가로 13.4m 세로 11.2m의 작은 연못에는 크고 작은 돌이 무려 90여 개나 들어 있다.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60여 개, 물에 잠긴 돌이 30여 개다. 이 중 19개의 돌에 이름을 붙였다. 관란석(배우는 자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상경석(선비는 마땅히 내면을 충실

히 하고 재화나 명예를 탐내지 말아야 한다), 분수석(물은 여러 갈래로 흐르지만 그 근원은 하나다) 등 제각각의 돌마다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다. 늦가을이면 수령 400년을 넘긴 거대한 은행나무가 쏟아내는 노란 단풍이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는 경정에 걸터앉는다. 화려하지도 거대하지도 않지만 만물의 조화로움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서석지를 보며 즐기는 작은 여유다.

340년 전의 요리법에 반하다

다음은 ‘언덕 위의 마을’이라는 뜻의 두들마을로 발길을 옮겨보자. 석계 이시영 선생의 둘째 부인이었던 장계향의 마을로 불리기도 한다. 장계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글 조리서인 ‘음식디미방’을 남겼다. 허균의 ‘도문대작’이나 김유의 ‘수운잡방’ 등의 요리책들이 있었지만 모두 한자로 기록됐다. ‘음식디미방’에는 석계 선생의 종가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당시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자료로도 가치가 있다.

마을에 들어서면 예스러운 고택들이 황톳길을 따라 단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중에 석계 고택은 전형적인 경북지방의 ‘ㅁ’자 구조가 아닌 소

박하고 단순한 ‘ㅡ’자 구조를 지니고 있다. 지붕 용마루 끝에 장식 하나 없는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검소했는지 알 수가 있다. 석계 선생은 첫째 부인으로부터 1남 1녀를 뒀고 둘째 부인 장 씨로부터 6남 2녀를 뒀는데 모두 학문에 출중했다. 첫째와 둘째는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후학 양성과 학문 연구에 몰두했고 셋째 아들만 정계에 입문했다. 넷째 아들 이승일은 고향으로 내려와 마을을 끝까지 지켰다.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소설가 이문열이 이승일의 후손이다.

이승일은 흥년으로 민생이 참혹할 때 마을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집 안팎에 술을 걸어 죽과 밥을 지어 사람들을 먹였다. 그는 마을 주변의 작은 바위마다 글을 써놓았다. 배고픔마저 줄길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낙기대 주변에는 기근에 힘들어 하는 마을 사람들이 도토리라도 넉넉히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었다는 커다란 도토리나무가 있다. 이 밖에도 100여 기의 풍력발전기가 산의 능선을 이국적으로 그려놓은 맹동산, 가을이면 붉게 물드는 현리의 댐싸리 군락, 전통이 녹아 있는 100년 전통의 양조장 등 영양의 가을은 청정자연과 함께 깊어가고 있다. ☒



정명훈과 임윤찬의 만남



공연 원헨필하모닉 내한 공연

지휘자 정명훈이 원헨필하모닉과 함께 내한 공연을 갖는다. 여기에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협연이 예고돼 화제다. 1893년 창단 후 독일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원헨필하모닉은 5년 전 내한 공연에서 말러 교향곡 1번 '거인'과 브람스 교향곡 1번을 연주해 한국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번 공연에서는 임윤찬이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과 베토벤 교향곡 3번을 연주한다.

정명훈은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로 전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의 객원지휘로 완성도 높은 연주를 만들어내고 있다. 1974년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한 정명훈은 1984년 자르브뤽겐 방송교향악단(현 도이치방송교향악단)의 수석 지휘자로 지휘를 시작했다. 유럽 전역에서 활동해온 그는 2011년에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공로훈장 코망디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임윤찬은 2022년 제16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을 한 이후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연주자다. 그가 결선에서 연주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250만 회를 넘었다.

기간 11월 26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기간 11월 29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기간 12월 1일 장소 롯데콘서트홀



연극 연적

베스트셀러 작가 김호연의 세 번째 무대 시리즈 연극 '연적'이 10월 4일 대학로 유니플렉스 3관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극단지우가 '불편한 편의점', '망원동 브라더스'에 이어 선보이는 작품이다. 연극 '연적'은 한 여자를 사랑했다는 것 외에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두 남자의 엇박자 여행을 담는다.

기간 10월 4일~12월 31일 장소 대학로 유니플렉스 3관



전시 에르베 툴레展 색색깔깔 뮤지엄

영국에 앤서니 브라운이 있다면 프랑스엔 에르베 툴레가 있다.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MoMA), 영국 런던 테이트모던, 일본 도쿄도현대미술관에 이어 서울 예술의전당에 다시 찾아오는 에르베 툴레는 고정된 방식으로 그리는 그림, 예쁘게 그리기, 잘 그리는 그림을 요구하지 않고 평소에 자신이 보는 아름다운 것들을 놀이처럼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고 말한다.

기간 11월 3일~2024년 3월 3일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도서 나를 위해 쓴다

“배우는 일지를 써야 한다.” 유준상은 대학교 1학년 연기 수업 때 들은 스승의 한마디에 일지를 쓰기 시작했다. 연기 수업에 대한 짧은 코멘트에서 시작한 일지는 해를 거듭해 쌓여갔다. 이 책은 그중 2015년 이후 1500매에 달하는 배우일지를 추려서 다듬었고 총 서른세 번 무대에 올린 뮤지컬 '바람; 위대한 쇼맨'의 공연일지 전문을 실었다.

저자 유준상(수오서재)

영화 '소년들' 배우 설경구

“실화가 가진 힘이 있다… 때론 현실이 영화보다 잔인”

'소년들'은 올해 데뷔 40주년을 맞이한 '한국영화계 명장' 정지영 감독의 신작이다. 정 감독은 6·25전쟁을 배경으로 한 '남부군(1990)', 베트남전쟁의 상처를 그린 '하얀 전쟁(1992)', 2007년 석궁 테러 사건을 소재로 한 '부러진 화살(2012)', 금융범죄극 '블랙머니(2019)' 등 실화를 토대로 한 작품으로 한국 사회의 모순을 조명해왔다.

이번엔 삼례 나라슈퍼 사건이다. 1999년 2월 6일 새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라는 작은 가게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 사건 직후 경찰은 19~20세 남성 세 명을 범인으로 지목해 입건했지만 이들은 진범이 아니었다.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강요를 당한 이들이 허위자백을 한 것이다.

정 감독은 10월 23일 진행된 '소년들' 시사회에서 이번 영화에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영화화한 데 대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들이라고 해도 대부분 강 건너 불 보듯 지나간다. 이 사건은 그래선 안될 사건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영화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수사반장 황준철 역은 설경구가 맡았다. 설경구는 유독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에 자주 출연한다. 그의 이름을 알린 '실미도'가 그랬고 '그놈 목소리'와 '소원', 그리고 '생일' 역시 실제로 존재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였다.

‘공공의 적’ 이후 형사 역을 맡지 않았다. 이번 작품에서 오랜만에 형사가 됐다.

실제로 오랜 기간 ‘공공의 적’ 강철중과 비슷한 느낌의 캐릭터 제의가 많이 들어왔다. 근데 겹치는 면이 많아 밀어냈다. 이번 ‘소년들’의 황반장은 ‘정리된 강철중’ 같은 느낌이 들어 출연을 결심했다.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부담이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선택하는 이유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도 촬영 전에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 순간에는 분노했지만 흘러보냈던 사건이 아닌가 하고 반성했다. 항상 실화가 주는 강렬함이 있는 것 같다. 현실이 영화보다 더 잔인할 수도 있어서 끌리고 동시에 책임감도 생긴다.

현장에 나가기 전에 숙소에서 줄넘기를 2000~3000개씩 하는 습관이 있다고?

몸을 만들기도 하지만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다. 술자리에서 생긴 부기를 빼기도 하고(웃음).

역시 ‘지천명 아이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처음엔 민망했는데 하도 그러니 이젠 그러려니 한다. 이 나이에 언제 또 아이돌 소리를 들어보겠나.

함께 출연한 진경·염혜란 배우는 설경구 선배와 함께하는 게 꿈이었다고 했다.

나야말로 영광이다. 개인적으로 선배가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연기에는 선후배가 없다. [X]

유슬기 기자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영화 소년들

“이것이 무슨 수사여? 똥이제!” 1999년 전북 삼례의 작은 슈퍼마켓에서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경찰의 수사망은 단

번에 동네에 사는 소년들 3인으로 좁혀지고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내몰린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감옥에 수감된다. 이듬해 새롭게 반장으로 부임온 베테랑 형사 황준철(설경구 분)에게 진범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그는 소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재수사에 나선다.

개봉 11월 1일

공감 칭찬합니다 :)



726호 동아시아 최대 규모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서울 ADEX 2023)' 기사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육·해·공부터 우주까지 'K-방산'의 위용을 아낌없이 보여준 명실공히 '세계 5위권의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로서 손색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 정보기술(IT)은 물론 우주, 항공, 모빌리티 등 타 산업과 연관성이 매우 높아 동반성장이 가능한 방위산업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입지를 굳혀나가길 바랍니다. 김동석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725호 '때가 되어야만 알게 되는 것들' 지면을 가득 채운 수목화를 펼치는 순간 아득한 그리움의 물결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가을이어서일까요, 아니면 인생 후반전에 성큼 다가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 때문일까요. 한 뼘 떨어진 바위에 홀로 의연히 서 있는 백로를 참치이나 바라봤습니다. 공감 가는 좋은 작품 덕분에 마음속 먼지가 씻겨나간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김재준 울산 북구 천곡동

디지털 <K-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K-공감 gonggam.korea.kr

blog.naver.com/mcsl_pr

v.daum.net/channel/3094

facebook.com/wegonggam

youtube.com/weeklygonggam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과 햇살에 반짝이는 은빛 물결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사색을 즐겼습니다. 하늘도 높고 푸른 계절, 강가나 습지로 나가 산책도 하고 가을의 낭만을 즐겨보세요.

우도형 경기 평택시 진위면

<K-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칭찬합니다'와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1월 8일까지 이메일(gonggam@chosun.com)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

2023. 10. 23. ~ 12. 8.

반려식물 고민해결! 지금 출발합니다!

내가 키우는 반려식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치료가 필요한 식물들을 진단, 처방 해드리기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국립세종수목원이 직접 찾아갑니다.

프로그램 기본 반려식물 클리닉·상담, 반려식물 소개**별도신청** 나만의 반려식물 만들기(반려식물 키트 체험), 탄소 저감 실내 가드닝

* 별도 신청 프로그램의 경우 대상지별 1회 6인에 한정하여 운영

신청자격 이용자 그룹별 신청

(행정복지센터, 교육시설, 복지시설, 아파트 단지 등)

* 차량 주차 지역이 확보되어 최소 4시간 이상 차량(3.5t 또는 5.5t 트럭) 주차에 지장이 없어야 함

신청기간 2023. 10. 23. ~ 12. 8.

* 운영기간 중 상시 모집하며, 희망 일정 조율하여 선정자에게 개별연락

신청방법 기간 내 참가신청서 작성 후 E-mail로 제출 (garden@koagi.or.kr)

* 매일 발송 시 한메일, 네이버 메일 활용 요망

문의 T. 044-251-0274, 044-251-0290 E-mail. garden@koagi.or.kr**주최** 산림청**주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KOREA ARBORETA AND GARDENS INSTITUTE국립세종수목원
Sejong National Arboretum

2023-2024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와 함께하는

2023

대한민국
숙박세원
페스타



할인권 발급 및 할인 혜택 안내



온라인에서 국내 숙박(호텔, 콘도, 펜션, 한옥까지) 온라인 할인받고, 국내 여행 떠나자!

발급기간 10월 27일(금) ~ 11월 24일(금)

입실기간 10월 27일(금)~11월 24일(금)

사용지역 전국

·사 용 처 | 국내 숙박업소

*단,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등록한 숙박업소
*대실 사용 불가, 침낭시설 및 외국인도시민박업 제외

·**사용방법** | 참여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할인권 발급 및 사용

*참사: 기차역행선터, 찰스데이, 놀이공원, 넥스트루어, 대현다트클럽, 대일리호텔, 떠나요인형
여행행복, 위즐리, 마미리얼호텔, 알렌, 반라생물, 바틀리프지키, 스테이플우드, 스테이플우드이
쓰기, 아놀디, 카키고의, 모놀리딕, 옥스, 웨일리아어, 안티피크, 워밍, 무름, 헬퍼, 제우스의
제우스족, 카키고의, 유망한, 쿠켄트레버, 투리아어, 트리틀, 토티비트루, 토티비트루, 리온
리얼리티, 펜루어, 힌다카 스리라비, 호랑이족, 호랑이족, G012 SSG.COM TTB6 1144

·할인혜택 | 5만원 초과 국내 숙박상품 구매 시

COUPON

W 30,000

 ktostay.visitkorea.or.kr

☎ 전담 콜센터 | 1670-3980

*인인 1대 사용 가능(전작순)

*위 사업기간은 감염병 재확산 등의 정부정책의 긴급 변동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